

제2091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김찬규 메디포럼 대표 “경남제약 인수뎀 원원” 12



오정후 헬로네이처 대표 “대기업 새벽배송 환영” 23

코스피 (7일) 2165.79 (-0.81P)
코스닥 736.83 (-0.87P)
환율(달러당 원화) 1129.0 (+0.2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817% (-0.011%P)

국세청, 공공기관 탈세·분식회계 조사

339곳 대상 세무조사 계획 수립
불공정거래 근절 등 투명성 강화
만성적자 원인 방만경영도 조사

국세청이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탈세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세청은 최근 내부적으로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등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관련기사 3면
국세청은 또 올 한 해 공공기관에 대한 탈세 정보 수집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

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기 또는 비정기 세무조사에 나설 때마다 일부 공공기관이 이익 축소와 매출 누락 등을 통해 탈세를 시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수천억 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방만경영을 일삼는 공기업들도 이번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세법 적용 오류 외에도 불공정 거래 등 주요 탈루 항목에 대해 집중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성적 적자의 원인인 방만경영과 분식

회계 또한 중점 분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월 말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339곳(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은 당분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 조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다”며 “다만 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 검증 작업이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공공기관은 경영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분식회계와 탈세

또한 적잖게 이뤄지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10년간(2008~2017년) 공공기관 215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2조624억 원을 추징했다.

연도별 추징세액은 △2008년 1285억 원 △2009년 469억 원 △2010년 1534억 원 △2011년 1057억 원 △2012년 569억 원 △2013년 2304억 원 △2014년 4885억 원 △2015년 2127억 원 △2016년 5065억 원 △2017년 1302억 원 등이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LG화학, 1兆 회사채 발행

수요 예측에 자금 몰려 2배 증액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성장기반 확충

LG화학이 회사채 수요예측제를 도입한 2012년 이후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원의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은 5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총 2조 64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수요예측제도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성공적 수요예측에 힘입어 LG화학은 회사채를 당초 계획인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한 해 회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이번엔 단 한번의 회사채 발행으로 마련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만기 3년물 1600억 원, 만기 5년물 2400억 원, 만기 7년물 2000억 원, 만기 10년물 40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회사채 발행 규모를 계획보다 2배 증액한 것은 투자자가 몰리면서 금리가 낮아져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유동성 선택보 차원도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화학은 지난해 창사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올해 매출 목표는 작년보다 13.5% 높은 32조 원이다.

LG화학은 이번 회사채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전기차 배터리 수주 물량 대응을 위한 생산능력 확대, 여수 NCC 증설 등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자금과 장기투자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 예상투자(CAPEX)는 전년 대비 34.8% 증가한 6조2000억 원에 달한다.

정호영 LG화학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회사채의 성공적 발행은 지난해 사상 최대 경영실적 달성 등 탄탄한 실적 흐름과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긍정적 평가에 따른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무건전성 강화와 사업구조 고도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전현희(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를 발표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카풀업계 “출퇴근시간 카풀 허용” 합의

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출시
택시 월급제 시행으로 처우 개선
카카오 카풀 서비스도 속도 낼 듯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오전 7~9시, 오후 6~8시 카풀 허용에 합의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마라톤 회의 끝에 카풀을 일부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열악한 택시산업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공유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왔다”며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카풀 시간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에 맞춰졌다. 오전 7~9시, 오후 6~8시 등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의 카풀이 허용됐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카풀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외에도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에도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업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줄이고,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초고령 운전자의 연령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정할 계획이다.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택시와 카풀업계가 카풀 허용시간을 합의함에 따라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카카오T 카풀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7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그달 17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택시기사 분신 사망사건으로 인해 1월 시범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합의안을 이끌어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서비스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BMW “차량화재, 한 푼도 보상 못해” 배짱

“리콜로 정신적 피해 회복” 서면 제출
차량 소유주 손배소송 오늘 첫 공판

BMW코리아가 차량 화재와 관련해 차주들의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에 관해서도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담긴 문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코리아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에 “리콜로 손해가 회복돼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민사22부는 화재 전조 증상을 보인 차량과 리콜 차량을 소유한 차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로, 첫 공판은 8일로 예정돼 있다.

BMW코리아는 재판부에 낸 서면에서 “리콜 조치로 자동차에 존재하는 결함이

모두 수리돼 자동차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보전됐다”며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도 회복돼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일시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없을 뿐더러 그에 수반하는 정신적 피해도 소멸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자동차 결함 외에 다른 재산상 피해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차주들은 그간 중고차 가격 하락, 차량 운행 불가에 따른 사용 이익 상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의 재산상 손해를 호소해왔다.

그러나 BMW코리아는 다른 재산상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는 리콜로 해소됐으므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됐다는 논리다. 윤한솔 기자 charmy@

“자녀 따라 부모도 ‘BTS 적금’ 가입했다” 허인 행장도 깜짝 놀란 ‘방탄 효과’

〈KB국민은행〉

“방탄소년단(BTS)의 모델 효과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저희 예측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7일 이투데이와 만나 ‘BTS적금’ 돌풍에 대해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허 행장은 “(당초) 젊은 층이 타깃이다 보니 소액 위주 가입을 예상했는데, 중·장년층 가입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며 “적금액도 소액의 범위를 벗어나, 평균 20만 원을 상회했다”고 미소를 지었다. 소비와 함께 운용 가능한 자금 규모가 작은 10·20대 고객이 대부분일 것이란 허 행장의 예측이 기분 좋게 빗나간 셈이다.

BTS적금은 국민은행이 방탄소년단과 콜라보레이션해 탄생한 월 한도 100만 원의 1년제 자유적금 상품이다. 적금 가입 시 방탄소년단 이미지가 담긴 통장을 받을 수 있다. 허 행장은 지난해 6월 BTS적금 출시 당시 1호 가입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은행은 BTS적금 예상 가입자로 방탄소년단의 팬들인 10·30대가 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40·50 중장년층의 가입이 줄을 이었다.

허 행장은 “자녀를 따라 부모도 BTS의 팬이 돼 가족단위로 좋아하게 된 경우가 많아 특정 계층에 쏠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적금 상품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한 마케팅 효과가 기대 이상이었다는 의미다.

지난달로 판매 종료된 BTS적금은 27만 좌, 2340억 원이라는 판매 실적을 올렸다.

적금 판매 기간은 지난해 말까지였지만 1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BTS적금 판매 실적 (2월 28일 기준)
계좌 수 27만 좌
누적 잔액 2340억 원

혜택 - 첫 회 1만 원 이상, 매월 100만 원 이하 1년제 자유적금
- 우대이율 적용 시 최고 연 2.3%

가입자 10~30대 예측했지만
40·50대 중장년층 가입 쇄도
적금액도 평균 20만원 상회
27만좌 판매 2340억 실적 올려

“머릿속 생각과 현실은 차이
선입관 버리고 새로 배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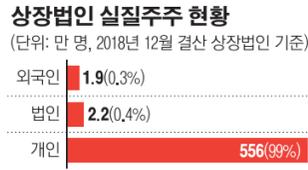
이어 지난달 말까지 추가로 기한을 늘렸다. 통상 은행권에서 아이돌 전용 상품을 출시했을 때 목표를 10만 좌 수준으로 설정한다. 일반적금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4만~5만 좌만 팔려도 ‘히트상품’으로 분류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BTS적금은 허 행장에게 신선한 인사이트를 선사했다. 허 행장은 “핀테크 회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테스트 앤 런(Test and run)’이 있지 않냐”며 “머릿속 생각과 실제와는 갭이 있으니 선입관을 버리고 항상 새로 배우자고 얘기하곤 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2017년 방탄소년단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으며 은행권에 아이돌 바람을 일으켰다. 지난해 말 계약을 연장해 올해까지 ‘방탄 효과’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새롭게 배포한 방탄소년단 ‘Liiv(리브)’ 광고 영상도 유튜브 수백만 뷰를 돌파하는 등 국내를 넘어 글로벌 마케팅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상장법인 실질주주의 거주자·성별·연령대별 상위 6개 구·시·군
(단위: 명, 주, 2018년 12월 결산 기준)

시·도	구·시·군	형태	성별	연령	주주수	주식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	남자	40대	30,161	783,624,367
경기도	성남시	개인	남자	40대	29,455	380,202,759
경기도	성남시	개인	남자	50대	29,203	623,268,538
경기도	수원시	개인	남자	40대	24,790	166,942,262
경기도	용인시	개인	남자	40대	23,689	179,040,24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	남자	50대	22,930	1,013,169,817

작년 주식 투자자 561만명 강남 50대 남성 ‘최다 보유’

총보유 주식 10억1317만주
실질주주, 1년새 11% 늘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216개사의 실질주주(중복주주 제외)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 주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 거주 50대 남성으로 10억1317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7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체 실질주주 약 561만 명이 보유한 주식수는 총 약 868억 주로, 주주 1인당 평균 약 1만5463 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주주란 증권회사 등 예탁자를 통해 예탁결제원에 예탁돼 있는 주권의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는데, 지난해 전체 실질주주수는 전년 대비 506만 명) 대비 55만 명이 늘었다. 1인당 평균 보유 종목은 4.27종목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실질주주 구성은 개인 주주가 556만 명(99.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법인 주주 2만2000명(0.4%), 외국인 주주 1만9000명(0.3%)의 순이다. 보유 주식수도 △개인 주주 408억 주(47.0%) △법인 주주 319억 주(36.8%) △외국인 주주 136억 주(15.7%)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

균 보유 주식수는 법인 주주가 143만 주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주주 72만 주, 개인 주주 7345주 순으로 조사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법인 주주의 보유 주식수가 222억 주(43.7%),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 주주의 보유 주식수가 233억 주(66.2%)로 가장 많았다. 코넥스시장도 개인 주주의 보유 주식수가 5억5000만 주(67.3%)로 가장 높았다.

거주지·성별·연령대별 실질주주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 40대 남성이 3만 명이며, 보유 주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역시 강남구 거주 50대 남성(2만2990명)으로 이들은 10억1317만 주 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삼성전자(78만8047명)가 실질주주가 가장 많았고, 이어 SK하이닉스(30만9613명), 셀트리온(22만7653명) 순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신라젠(14만6951명)이 가장 많고,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11만8103명), 에이치엘비(7만748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식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동양생명보험(84.9%),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한국기업평가(84.0%)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인사말씀

두산그룹 고(故)박용곤(엘리아) 명예회장의 상례에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와 문상과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드림이 마땅한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가족 일동 드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좋은 책도 못 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아침에 건넌데 일어나지 않으면 내내 경인이 멍하니?
이불 밖으로 나가는 게 싫어서 이불 속에서 계속 버티고 싶다면?

1. 잠을 자는 동안 몸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방법
2.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방법
3. 아침에 일어나기 위한 준비 방법

나도 아침에 일어나고 싶었다

이 책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빛 감추고 분식회계로 '흑자둔갑'... 혈세로 '성과급'

공공기관 방만경영 백태

국세청이 339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것은 공공기관의 분식회계를 통한 실적 뺑뺑기와 이익 줄이기를 통한 탈세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실적 평가가 성과급은 물론 기관장 거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편법이 되풀이 되고 있어 이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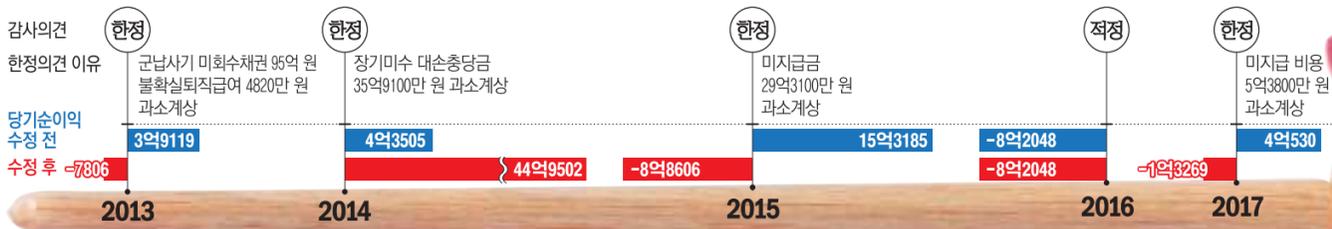
공공기관들이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해 실적을 부풀리는 사례가 각종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양평군 산하 공기업인 양평공사의 분식회계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양평군에 따르면 양평공사는 2013~2017년(2016년 제외)까지 당기순이익상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지급비용(채무)을 실제보다 적게 책정해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킨 것이다.

또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자산재평가로 순자산에 늘려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춘 사실도 적발됐다. 이처럼 양평공사가 분식회계를 한 이유는 지방채 발행 시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및 행안부 '2016년 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공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3년 이상 계속 적자면 사전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평공사가 정상적으

양평공사 경영실적과 외부 감사의견 비교 (단위: 원) ※ 한정 의견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해 진술하는 감사의견 중 하나로 재무제표 표시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출처: 양평군청



기관장들 실적 높여 '과대포장' 재무제표 뺑뺑기·이익 줄여 탈세 집행률 높여 '허위 완공' 등 꼼수 '국민생활 밀접...감사기준 높여야'

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면 3년 이상 적자에 부채비율 200%를 넘겨 공사채 발행 시 행안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다.

금융 공기업인 산업은행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청산 가치를 높게 계산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축소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들이 경영실적을 뺑뺑기해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례도 적지 않다. 2017년 1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적결추진단은 2014~2015년 총 9637억 원 상당의 국책사업 공사에 대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 처리한 한국농어촌공사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게 대해 검찰 수사 의뢰 및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공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고, 그 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사업비집행률 항목에서 B등급을 받았다. 이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2년간 총 254억 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당시 부패적결추진단 관계자는 "연말에 모든 공사가 다 완공된 것으로 서류 처리를 하면 사업비 집행률이 높아져 경영실적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성과급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2007년에 한국농어촌공사 전신인 한국농촌공사가 회계 과정에서 자산 규모를 축소 신고해 국세청으로부터 151억 원을 추징 당했다.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한국전력이 경영 실적 자료를 부풀려 성과급 잔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2006년 1월 수익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는데 같은 해 연말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때 전기료 인상분을 일을 잘해 번 것처럼 보고했다. 그 결과 한전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899억 원의 성과급을 챙길 수 있었다.

감사원은 또 지방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 경영실적(2013년도)을 부풀린 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민간기업보다 더 엄격한 회계기준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만 볼 게 아니라 외부감사를 통해 그것이 실제와 맞는지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박종화 기자 pbell@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 수송	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수소자동차 - 자율주행차 - 친환경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 차세대 항공(드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헬스케어 -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 스마트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홈 - 서비스로봇 - 웨어러블 디바이스 미래형 디스플레이 - 지능정보서비스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환경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에너지 -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 지능형 전력시스템 - 에너지 효율 향상 - 청정생산 - 원자력 안전 및 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소재 - 차세대반도체 - 첨단 제조공정·장비 - 디자인 융합 - 스마트 산업기계 - 스마트 엔지니어링 - 3D 프린팅 	

산업부, R&D에 연간 3.2兆 투자 헬스케어·자율車 등 5대 분야 집중

정부가 헬스케어와 에너지, 스마트 제조 등 5대 전략 분야에 앞으로 3년간 9조 원의 연구·개발(R&D)비를 집중 투자한다. 철도와 태양열 발전 등 성장 가능성이 낮은 산업의 R&D 지원은 줄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019년 제1회 전략기획 투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산업기술 R&D 투자 전략'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5대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R&D 예산 투자 비율을 2021년까지 95%까지 높이기로 했다. 산업 분야 R&D 예산이 연 3조2000억 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3년간 이들 분야에 9조 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가 선정한 5대 집중 투자 분야는 편리한 수송, 스마트 건강관리, 편리한 생활, 에너지·환경, 스마트제조 등이다. 산업부가 R&D 집중 투자 분야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큰 차세대 반도체와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수소에너지, 미래형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대로 철도와 내연기관, 태양열·지열 발전, 생활

약품 등에 대한 R&D 지원은 점차 줄이거나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선 전략산업 육성 과 R&D 기술 사업화를 위한 산업기술정책펀드 운용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우선 올해 정부가 출자하는 450억 원을 종자돈으로 세 개 펀드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새로 조성되는 펀드는 차세대 2차 전지 펀드와 혁신성장 전략투자펀드, 바이오 R&D 펀드(Buy R&D·외부 기술 도입을 위한 펀드) 등이다. 산업부는 이들 펀드의 총 출자금이 1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조성한 500억 원 규모의 신산업외국인투자유치촉진펀드와 1000억 원 규모 GIFT펀드(우수 R&D 사업화를 위한 펀드)도 올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선다. 운용사는 각각 한화투자증권과 엔베스터로 결정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5개 연도(2019~2023년)의 산업 기술 R&D 정책 방향을 정하는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초안도 논의했다. 산업 기술 개발 체계와 인프라, 시장화 방안 등이 담겼다. 산업부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에서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국가고객만족도 1위
2018 NCSI 증권 금융상품매매부문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1위
2018 KCSI 증권부문

소비자 중심 경영
공정거래위원회 1 한국소비자원
2018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하지만, 만족에 끝이 어딥습니까?

NH투자증권이 고객만족 부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객 만족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고객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투자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자가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새로운 문화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8-05002호(2018-12-19~2019-12-17)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립 50주년
CREATE 50

미세먼지는 예비비로 가능... 경기부양 포함 댄 추경

학교 공기정화장치 보급 등은
목적·일반예비비 3조로 충분

자연재해 해당, 추경 요건 충족
재정 규모 따라 편성 가능성

초유의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각 부처에 미세먼지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건이 맞으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건만 따지면 추경을 편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의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세먼지는 대규모 재해 중 자연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자연재해 중 하나로 통상 3~5월 장쾌하는 황사와 겹쳐 대기 질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국회에는 미세먼지를 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요건 논란은 완전히 해소된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여야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니 재해나 아니냐의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 부호가 따른다. 올해 예산에 미세먼지 대응 용도로 학교 공기정화장치 보급(620억원) 등 1조90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자연재해 대응에 사용되는 목적예비비도 1조8000억원이 된다. 여기에 1조2000억원의 일반예비비도 있다. 청와대가 밝힌 추경의 목적은 공기정화장치 보급 확대와 중국과 공동협력 사업 추진이다. 이들 목적에만 재정을 집행한다면 예비비 내에서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관건은 앞으로 나올 미세먼지 긴급대책에 소요될 재정 규모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 때처럼 내수경기 부양 목적의 사업들이 포함된다면 소요재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메르스 추경은 그 규모가 11조6000억 원에 달했다.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추경 편성보다 예비비 집행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통상 보름에서 1개월이 소요되는데, 2000년 추경은 99일이나 걸렸다.

정부도 우선은 예비비 등 기존 예산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제 홍 부총리도 그랬듯, 우선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나와야 하고 거기에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봐야 한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단정적으로 어떻다고 말하기 어렵고,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기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해수부, 부산 제2 신항 추진

항만 대기질 개선 법제화

정부가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또 부산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 신항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과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항만 미세먼지 대응, 수산 혁신, 해운 재건 등이 포함된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항만 지역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 '항만 지역 대기 질 개선 특별법'을 제정,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하역 장비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와 협업해 항만 대기 질 측정망도 설치해 실시간 측정한다. 부산항과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에 선박이 정박 시 발전기 가동 대신 육상전원공급장치를 공급하

도록 8선석을 신규 설치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원을 차단하고 수거 체계도 정비한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원인인 폐부표·폐어구 자율회수 지원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을 통해 수거 명령제, 쓰레기 해양유입차단 의무 신설 등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7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해양안전도 강화한다. 여객선 운항관리자를 106명에서 142명으로 확대하고 낚시배 선장 자격 기준 강화 등 낚시배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또 상반기 중에 부산항 제2 신항 계획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추진기로 했다.

김영춘 장관은 "올해는 수산 혁신, 해운 재건 등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과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불참으로 보고회와 본회의 무산에 대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시스

첫 합의도 의결 못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기로

노동계 위원 3명 불참으로 회의 무산... 탄력근로제 처리 못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 이후 첫번째 합의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의결이 7일 불발했다. 사회적 대화의 동력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이날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경사노위 2차 본위원회는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3명이 불참을 통보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경사노위법상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

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근로자위원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총 4명이다. 이중 3명이 불참함에 따라 본위원회 개의는 할 수 있지만 의결 정족수는 안 된다.

경사노위는 이날 광화문 사무실에서 비공개 본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 드러난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오늘 본위원회에 대한 일부 위원의 불참으로 어렵게 마련된 소중한 결과들이 최종 의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위원회를 3월 11일 다시 개최해 미뤄진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경사노위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운영안 뿐만 아니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 양극화해소위원회 설치 등의 안건 논의가 멈췄다. 또 업종별 위원회로 출범하려던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와 '버스운수산업 위원회'도 출범이 미뤄지게 됐다. 앞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민연금 개혁 등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김상조 "올해 중견그룹 일감몰아주기 조사"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4~5월 중 재계와 3차 간담회를 갖는다. 아울러 올해 중견그룹(기업)의 일감몰아주기(계열사 부당지원행위)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김 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공정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 번째 간담회는 종전과

다르게 자주 보지 못하거나 비즈니스 차원에서 어려운 10대 이하 그룹 CEO들과의 만남이 될 것"이라며 "간담회에서는 이들 그룹의 고충을 청취하고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일감 개방(비계열사로 일감 이동)에 대해서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중견그룹은 자산 규모 5조 원 미만인 기업집단이다.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지만 그 미만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중견그룹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행위를 조사·제재할 수 없지만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그룹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韓中 인공강우 공동실험 한다는데...

환경부, 올해 추진 입장 밝혀
中, 기술 전수해 줄지 미지수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방안으로 중국과 인공강우 공동실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대책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긴급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내 중국과 인공강우 실험 및 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을 비롯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방안이다. 국내에서는 살수차 운영, 상한제한 발전소 확대, 차량 운행제한 확대 등이다.

인공강우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커 중국이 무상으로 기술을 전수해

줄지부터 의문이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공강우 기술력이 앞서 있다. 중국은 미국 등과 함께 이 분야 최고 선진국으로 꼽힌다.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경로조차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은 상태다.

한중 양국이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예보전송 방식 등의 공유가 필요하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공동 워크숍을 여는 등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에 한중 공조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해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하는 등 온도차가 크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쌀 수출, 日 10배 늘 때 국산은 반토막

사드 후폭풍에 中 수출 막혀
농가 "유통·물류 지원 필요"

남아도는 쌀, 줄어드는 소비, 비싼 가격. 비슷한 쌀 시장 구조를 가진 한국과 일본이 걸어가는 길은 전혀 다르다.

7일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쌀 수출량은 1만3794톤으로 전년(1만1841톤)보다 16% 늘었다. 10년 전인 2009년(1312톤)보다는 열 배나 증가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 검역 요건 완화를 이끌어내는 등 쌀 세일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이 쌀 수출에 공을 들이는 것은 국내 소비만으로는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59.8kg으로 한국(61.0kg)보다 적다. 반면 쌀 생산량은 832만4000톤으로 한국(386만8000톤)의 두 배가 넘는다. 일본이 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린 이유다.

일본이 외국 쌀 시장을 공략할 동안 한국의 쌀 수출은 반 토막 났다. 2009년 한국의 쌀 수출량은 4495톤이었지만 2018년엔 2031톤으로 뚝 떨어졌다. 2017년(2850톤)에 비해서도 28.7% 감소했다.

한국도 한때 쌀 과잉 생산의 해법으로 수출을 추진했다. 특히 2016년 중국 수출길이 열리자 중국에만 2000톤을 수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이듬해 사드 배지로 중국이 무역 보복에 나서자 후속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

한 쌀 수출 농가는 "쌀을 수출해도 유통 시설이 마땅치 않아 금세 변질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北 미사일 발사장 재건 징후... 트럼프 “사실이면 실망”

동창리·산음동 움직임 포착... 美 압박 나서 美 불턴 ‘제재 강화’-폼페이오 “협상 재개” 북미 관계 살얼음판 속 文대통령 역할 고심



북한과 미국이 서로 강은 양면전술을 구사하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중재자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입장 차에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한 채 북미 대화 재개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미국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아직 사실인지 확인하기에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매우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5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북한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철거시설 일부 복원과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 몰타 운송용 차량 활동이 포착됐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원

들이 7일 전했다.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새로운 길’로 단정하긴 이르다. 특히 북한 조선중앙TV가 6일 밤 방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 및 베트남 공식 방문 기록영화에서 “북미가 논의된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북미 대화 여지를 열어놨다.

미국도 대북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앞세워 연일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협상 재개를 위해 “수주 내에 평양에 팀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압박과 북한 달래기의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북미 관계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첫 중재자 역할에 나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워싱턴에서 한미 회담과 한미일 3차 회담을 마치고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 없이 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이 본부장은 워싱턴DC를 방문할 때마다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져왔다.

이 본부장은 미국의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외교부는 침묵하고 있지만 조기 북미 대화 재개, 대북 제재 틀 안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신동민 기자 lawsdm@

與, 공정거래·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 방침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 공수처법도... 상법은 빠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협상한 뒤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확정된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준연동제·북한연동제·보정연동제 등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 세 모델’ 중 하나를 바탕으로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

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은 10개다. △선거제 개혁안(공직선거법)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국민투표법 △국가정보원법 △행정심판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부정 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등이다.

다만 상법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모두 합의하면 모든 상임위원회별로 3분의 2 인원이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박수는 하지만... 이해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쪽지 예산 근절 위해 예결 소소위 금지”

의장 직속 혁신자문위 권고... 국회 상시화·이해충돌 방지도

국회 운영을 상시화하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개혁방안이 제시됐다. 문화상 국회의장 직속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일하는 국회와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한 내용이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자문위의 권고에 제대로 정착되면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투명한 국회로 거듭나고 신뢰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위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매달 1일 열도록 권고했다.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

산하고 내실 있는 안전심사를 진행하려면 국회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혁신자문위는 손해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론화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과거 부정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방지 관련 내용을 다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혁신자문위는 이른바 ‘쪽지 예산’ 근절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공개 소위원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小)소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이낙연 “車 2부제 어기는 공직자 인사 불이익”

“정부 부처 솔선수범”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차량 2부제를 어기는 공직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지시한 바 있는데 일부 공직자는 차량 2부제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

면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5일 국무회의에서 “관용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든가 2부제를 적용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는데도 일부 공직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 이 총리는 “환경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무 부처는 주무 부처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마지막 치과치료 언제였나요?

잇몸을 지키는 Daily Care, **검가드**

액상 타입으로 잇몸 사이사이 구석구석까지 강력하게!
잇몸 질환 원인균 99.9% 제거

검가드, 이런 분께 권합니다

- ▶ 피곤할 때마다 잇몸이 쉽게 붓는다
- ▶ 양치질 등 작은 자극에도 잇몸에서 피가 난다
- ▶ 평소보다 입 냄새가 심하게 난다
- ▶ 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

■ 치은염, 치주염 예방 및 개선효과
치은지수(GI)개선 효과 정도(6주사용)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6주 임상]

■ 잇몸질환 원인균 잔여비리소균 99.9% 살균효과(시험기관·노르젠(주))
■ TPA 성분으로 잇몸 혈액순환 촉진 ■ 판테놀 성분으로 잇몸을 탄탄하게

잇몸가드린 검가드

화웨이 “中 제품 보이콧은 헌법 위반”… 美 정부 제소

“2019 국방수권법” 中 기업 권리 침해… 텍사스 법원에 소장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사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화웨이는 7일(현지시간) 자사 제품을 비롯한 일부 중국 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미국 헌법 위반이라며 미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CNBC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화웨이가 문제 삼은 건 ‘2019 국방수권법’이다.

지난해 8월 미국 초당파 의원들의 찬성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 법은 중국산 통신제품, 특히 화웨이와 ZTE 제품을 미국에서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측은 중국의 스파이 행위 가능성을 제기하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 이 법에 의거해 정부 기관들과 기업들의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해 왔다. 이 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미국 정부 기관들은 중국 5개사 제품의 조달을 중단한다. 내년 8월부터는 이 5개사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과의 거래도 중단해야 한다.

화웨이는 이 법 조항이 미국의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미국 헌법은 의회가 재판 없이 개인이나 단체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2019 국방수권법’의 조항은 ‘적법한’ 절차 없이 처벌받게 돼 있어 화웨이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귀 핑 화웨이 순환 회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차단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7일(현지시간)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P뉴시스

하려고 판사, 배심원, 집행인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며 “헌법을 위반한 법 조항을 영구 금지토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국 의회는 우리 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에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존스데이 로펌의 글렌 네이거 변호사는 “국방수권법 적용으로 화웨이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에게 5G를 비롯한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화웨이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

여질지는 미지수다. CNBC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17년에 벌어진 소송을 언급했다. 2017년 러시아 사이버 보안회사인 카스퍼스키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러시아의 정보 수집 위험성을 이유로 미국 정부가 카스퍼스키를 미국에서 퇴출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법원은 “연방 정부 기관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예방적인 보호 차원으로서 내려진 처분이 특정 사건에 대한 징벌로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법률회사 홀랜드앤드나이트의 에릭 크루시우스 변호사는 “정부는 개인이나 회사를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핵심은 판사가 이것을 처벌로 볼지 아니면 정부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합법적인 시도로 볼 것인지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김영정 기자 jyoung2@



“내 이름이 ‘팀 애플’이었던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왼쪽)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의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열린 ‘미국노동정책자문위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쿡 CEO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그를 ‘팀 애플(Tim Apple)’이라 불러 주위를 당황케 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의 이름에 별명을 지어 부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쿡 CEO의 이름을 잘못 부른 것도 의도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애플 ‘퀄컴 안방’에 기술기지 세운다

“샌디에이고에 엔지니어링 허브 구축 1200명 고용”

애플이 전 세계에서 특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업체 퀄컴의 안방 격인 미국 샌디에이고에 엔지니어링 허브를 구축한다.

케빈 폴코너 샌디에이고 시장과 크리스티나 라스페 애플 글로벌부동산 부사장은 6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 유니버시티타운센터에 있는 애플스토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라스페 부사장은 올해 말까지 200명, 2021년까지 총 1200명의 엔지니어를 샌디에이고에서 고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12월 엔지니어를 1000명 고용하기로 한 약속의 일환이다. 애플은 이미 샌디에이고에서 600명을 고용하고 있다.

라스페 부사장은 “샌디에이고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 핵심 엔지니어링 허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팀 쿡 최고경영자(CEO)를 대신해 샌디에이고에 오게 돼 기쁘다”며 “애플이 이곳의 미래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폴코너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최근 몇 주간 애플과 지속적으로 만나 회사의 성장 계획을

논의해왔다”며 “애플 덕분에 샌디에이고 일자리가 약 20%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CNBC방송은 애플이 엔지니어링 허브를 샌디에이고에 구축하는 것은 현재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퀄컴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애플은 2011년부터 퀄컴의 모뎀칩을 사용했지만 특허 분쟁이 시작된 2016년부터는 인텔 칩으로 바꿨다. CNBC는 “지난해부터 애플이 타사 모뎀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자적 칩 개발에 착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애플이 샌디에이고에 새로운 엔지니어링 허브를 구축하는 것도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애플과 퀄컴의 공방은 2017년 1월 시작됐다. 애플은 퀄컴이 모바일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퀄컴도 곧바로 애플을 사업 방해 및 계약 위반 등으로 맞고소했다. 양사는 지난 4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서 특허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日 반도체 기업 ‘르네사스’ 공장 13곳 가동중단

중국 車·기계용 수요 감소 여파

중국 경기둔화 충격이 글로벌 산업계 전반을 뒤흔드는 가운데 특히 반도체 업종이 받는 영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 반도체 대기업 르네사스테크놀로지가 일본 국내외에 있는 공장 14곳 중 13곳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아이신문이 보도했다.

차량용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 일본 내에서 실리콘웨이퍼에 전자회로를 새기는 ‘전(前)공정’을 담당하는 6개 공장은 최대 2개월간 휴업한다.

4~5월의 대형 연휴를 기점으로 1개월, 8월 여름휴가 기간 1개월 각각 공장 가동을 멈출 계획이다.

르네사스는 이미 자동차 대기업 등 주요 고객과 자사 노동조합에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

이전에도 여름휴가 기간에 1주일 정도 휴업한 적은 있었지만 1개월이 넘는 가동 중단은 이례적이다.

반도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후(後)공정’을 다루는 구마모토현 등의 공장 3곳은 4~9월 몇 주 정도씩 조업을 멈출 방침이다.

공장 종업원들은 일시 귀휴시키고 휴업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외 공장 중 4곳도 수주간 생산이 중단된다.

장기간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올해 생산은 전년보다 1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르네사스는 중국에서 자동차와 기계용 반도체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감소세를 보여 재고 수준을 적정화하려면 이런 고육지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르네사스의 주력 제품은 자동차와 가전, 산업기계 제어 중추를 담당하는 반도체인 ‘마이크로컨트롤러’다.

중국에서 자동차와 에어컨, 공장기계 수요가 둔화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수주도 줄어든 것이다.

르네사스는 지난해 미국 반도체 업체

인티그레이티드디바이스테크놀로지(IDT)를 67억 달러(약 7조5570억 원)에 사들이는 대형 인수·합병(M&A)을 감행했다. 르네사스는 IDT 인수를 시작으로 해외 사업 강화에 베풀었지만 중국 경기둔화라는 최대 장애물을 만난 것이다.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어려움은 일본만이 겪는 것이 아니다.

애플은 아이폰의 중국 판매 감소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퀄컴 등 글로벌 주요 반도체 8개사의 지난해 4분기 총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등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확산해 르네사스처럼 감산과 투자 억제에 나설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명품거물’ 아르노, ‘주식재벌’ 버핏 제쳤다

LVMH 사상 최고 실적에 ‘세계 3위 부호’ 점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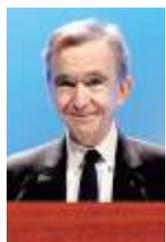
명품업계 거물인 프랑스의 베르나르 아르노(70·사진) LVMH 회장이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을 제치고 세계 3위 부호로 등극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아르노 회장의 재산은 올 들어 지금까지 145억 달러(약 16조3676억 원) 늘어난 831억 달러로, 버핏을 약 1억 달러 앞섰다.

아르노 회장이 세계 톱3 부호에 진입한 것은 억만장자지수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아울러 유럽 부자들 중에 세계 3위 이내로 진입한 것도 ‘지라(ZARA)’ 브랜드로 유명한 스페인 의류업체 인디텍스의 아만시오 오르테가 회장 이후 처음이다. 현재 오르테가 회장의 순위는 5위다.

아르노 회장 재산 대부분은 그가 보유한 크리스찬디올과 LVMH 주식으로부터 나온다. 크리스찬디올과 LVMH 모두 중국 소비문화 역풍에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올해 주가가 각각 20% 폭등했다.

루이비통 모회사인 LVMH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0% 증가한 535억 달러에 달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다. LVMH는 실적 호조에 힘입어 1월 말 연간 배당금을 20% 인상하기도 했다.

1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럭셔리 산업은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전 세계 럭셔리 시장에서 중국 비중은 3분의 1에 달한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 경기둔화 등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등의 구매를 주저하지만 핸드백과 같은 소형 사치품에 대한 소비는 식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풀이했다. 중국 럭셔리 시장이 든든하게 버티면서 아르노 회장이 지난 5년간 불린 재산은 326억 달러에 이른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닷컴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재산이 152억 달러 증가한 1401억 달러로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설립자는 982억 달러로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The Banker誌 (더 뱅커지)
'2018년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선정

우리금융그룹

2 0 1 9

우리은행 창립

120 주년

1 8 9 9

고객과 함께 120년 우리의 미래

1899년, 민족자본으로 시작한 우리은행
120년의 역사를 발판으로 세계금융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역사를 한눈에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우리은행 본점 지하 1층)



<인상 후 7억2000만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행정안전위원회>

연봉 50% 오른 박차훈 회장... 국회서 타당성 검증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연봉 인상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다. 올해 박차훈 회장은 지난해보다 50% 인상된 7억2000만 원의 연봉을 수령한다.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별다른 문제로 삼지 않으면, 연봉은 이대로 확정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중앙회장 및 임원의 연봉을 결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4억8000만 원이었던 박 회장의 연봉은 올해 7억2000만 원으로 50% 오른다. 앞서 본지는 박 회장의 연봉 인상 정황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본지 1월 23일자 2면 참조)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올해 임원 예산으로 편성된 40억4000만 원 중에서 18%가량을 회장의 연봉으로 책정한 셈이다. 나머지는 중앙회 임원과 자회사 대표, 올해 새로 신설되는 금고감독위원회 의원의 몫이다. 지역 금고이사장을 겸임하는 중앙회 이사들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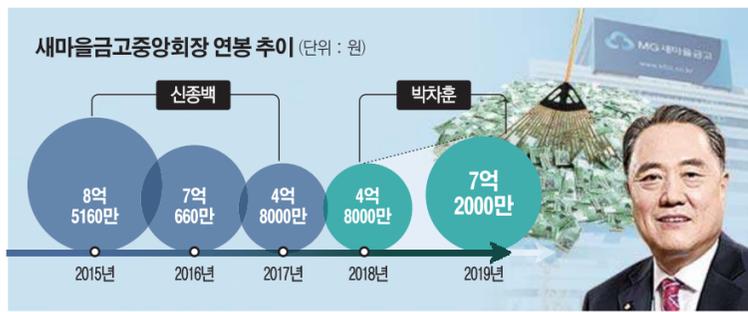
비상임 임원 급여 안 쥐도 되지만 업무추진비 명목 편법 수단 지급 임원 예산 40.4억 중 18% 육박

중앙회 "판공비 성격 감안해야" 행안위 문제 없을 땐 연봉 확정

봉도 200만~300만 원가량 늘어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장의 연봉은 기존 예정 안이 이번 이사회에서 확정됐다"라며 "다만 회장 수당 중 대부분은 판공비 성격인 것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첫 '비상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2014년 개정된 새마을



금고법에 따른 것이다.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근하지 않는 회장과 임원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종의 수당 명목으로 연봉을 책겨준다. 따라서 비상근 회장의 연봉 대부분은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지급된다. 일종의 편법 급여지급 방식이다.

박 회장의 이번 연봉 인상은 '법의 빈틈'을 제대로 확인시켜준 꼴이 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고액 연봉은 매년 국정감

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정부가 법을 개정할 것도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당'으로 책기는 항목에 대한 규제가 없어 법이 바뀐 이후에도 연봉은 되레 더 올라갔다. 또 연봉 인상안을 의결하는 이사회 역시 중앙회장이 소집해 사실상 '셀프 연봉 인상'이 가능한 구조다.

전임 신중백 회장의 경우 2015년 8억 5160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의원의 지적으로 1억4500만 원이 삭감된 7억660만 원을 2016년 연봉으로 받았다. 2017년에는 좀 더 삭감된 4억8000만 원을 받았다. 박 회장은 당선된 직후 전임 회장의 연봉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올해는 7억2000만 원의 연봉을 챙기게 됐다.

다만 비상임 회장이 이런 식으로 편법 수당을 챙기는 구조는 고쳐질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달 중으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앙회장의 연봉 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실 관계자는 "박 회장의 연봉 인상은 기존의 국정감사 지적 사항의 취지와도 전혀 반대되는 것"이라며 "비상임 회장의 급여를 편법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한지는 이번 달에 열리는 행안위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곽찬산 기자 jinsan@

금융사 6곳 신규인가... 가계빚 증가율 5%대로 관리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

올해 금융업 빚장이 확 풀린다. 이를 위해 상반기 6개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고, 각종 그림자 규제도 손질한다. 청년층을 위한 연 2%대의 전·월세 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주택연금 가계 대출 증가율은 5%대로 관리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1월 한화손해보험과 SK텔레콤, 현대자동차가 손잡고 만든 '인핏손해보험'에 예비인가를 내렸고, 이달에는 3개 회사에 부동산신탁 예비인가를 허가했다. 5월에는 최대 2곳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영업 규제를 과

年 2%대 청년 전·월세 대출 출시 주택연금 가입 연령 하향 조정

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그림자규제(행정지도 39건·모범규준 280여 건)를 일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회사 자율성도 확대한다. 보험의 경우 건강 증진형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 지원이 허용되고 카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업무를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금융소의 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정책도 추진된다.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한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연

2%대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최 위원장은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저변을 넓혀 노후생활 안정 수단으로써의 주택연금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며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1000억 원 규모의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뇌관으로 자리 잡은 가계부채는 5%대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상반기 내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불법사금융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이 도입되고, 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현대상선 사장에 '배재훈' 내정

<前 범한판토스 대표이사>

현대상선 신입사장에 배재훈(사진) 전 범한판토스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KDB산업은행은 5일 현대상선 경영진추천위원회에서 4명의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한 뒤 6일 배 전 대표를 현대상선 사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상선은 27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이번 신임 CEO 선임 과정에서는 현대상선의 경영혁신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영업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역량·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력채용 전문기관에서 경력과 능력을 평가하여 추천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복수



의 외부기관 평판 조회 및 면접 등을 통해 최적의 CEO 선임을 위한 과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배 후보자는 배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전자공학 학사를 취득했다. 숭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도 받았다. 1999년 LG반도체 미주지역 법인장, 2008년 LG전자 MC 해외마케팅 담당 부사장에 이어 2010년 범한판토스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대형물류 회사에서 6년간 CEO를 역임했다. 물류전문가로서 영업 협상력·글로벌 경영역량·조직관리 능력 등을 겸비했다고 평가받는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 자동수집 ↓

Cloud Center

↓ 자동분개 ↓

자동 회계처리 엔진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 자동입력 ↓

회계장부 | 자금관리 | 세무신고

↓ 자동검증 ↓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 법인세 MRI 검사, 부가가치세 MRI 검사, 상업등기 알림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림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DOUZONE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SUV 판매, 세단 첫 추월...싼타페·팰리세이드 효자

2월 실적 현대차만 66% 늘어
가족 중심 아웃도어 문화 한몫
SUV 신차 줄줄이 출시 앞뒤
“세단 역전 현상 당분간 계속”

스포츠퉂유틸리티차량(SUV)이 세단 판매량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정 소비자만 이용하던 SUV가 대중화되면서 폭발적 인기를 끈 덕분이다. 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의 지난달 SUV 내수 판매량은 4만 2761대로 세단 판매량(4만 1909대)을 넘어섰다. 월별 판매량으로 SUV가 세단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현대차만 보면, 세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 안팎으로 감소한 반면 SUV는 무려 66.2%나 급증했다. 지난해 국내 완성차업체 세단 누적 판매량은 총 68만 8459대로 SUV(60만 3066대)보다 9만 대가량 더 많이 팔렸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내 전체 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세단 내수 시장이 SUV 파위에 위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SUV가 대세로 떠오른 것은 기존 강점인 '내구성'과 '넓은 공간'에 세단의 매력적 '승차감'까지 더해지며 꾸준한 판매량이 증가한 덕분이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10명 중 3명 정도가 SUV에 관심을 보였지만, 이제는 5명 이상이 구매하면서 수요군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가족 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아웃도어 문화도 한몫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SUV 판매량이 전체의 50%를 넘으며 세단을 앞질렀다. 국내 SUV 판매량을 끌어올린 주인공은 우선 현대차의 산타페다. 지난해 2월 완전 변경된 모델로 재탄생한 산타페는 국내에서 SUV 사상 최초로 연간 10만 대 판매를

돌파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 합류한 팰리세이드도 돌풍을 일으키며 한몫하고 있다. 이미 누적 판매(계약)량은 5만 대를 돌파했으며, 올 들어서 현대차 SUV 누적 판매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밀린 주문이 4만 대를 넘어 평균 대기 기간만 6개월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용자동차 역시 지난달 8년 만에 완전

변경된 새로운 코란도를 내세우며 반격에 나섰다. 새 코란도는 합리적 가격에 디지털 클러스터 탑재, 최고 수준의 2.5레벨 자율주행 등이 가능해 호평을 받고 있다. 쌍용차의 대형 SUV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칸'도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SUV 열풍에 맞춰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다양한 SUV 라인업을 갖춰가고 있다. 현대차는 곧 출시될 경형까지 포함하면 'QX1(경형)-코나(소형)-투싼(준중형)-산타페(중형)-팰리세이드(대형)로 크기별 라인업을 고루 갖추게 된다. 기아차 역시 상반기 내 북미에서 출시 예정인 텔루라이드가 합류하면 '니로(소형)-스포티지(준중형)-쏘렌토(중형)-텔루라이드(대형)'의 SUV 라인업을 완성하게 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성수기뿐 아니라 비수기에도 SUV가 판매 실적을 이끌고 있다"면서 "올해는 제네시스 첫 SUV 모델인 GV80을 비롯해 기아차 SP2(코드명), 현대차 QX1(프로젝트명) 등 소형 SUV 출시도 대거 예정돼 있어 SUV가 세단보다 많이 팔리는 추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반도체 쌍두마차’ 삼성·인텔 자율주행차 격돌

삼성, 이스라엘 '브로드만' 투자
하반기 첫 관련 서비스 준비
인텔의 '모빌아이'와 맞붙어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투자회사 삼성넥스트는 6일 이스라엘 스타트업 브로드만17(Broadmann17)이 모금한 1100만 달러 규모 투자에 참여했다. 브로드만17은 2015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설립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차용 영상인식 기술 개발 스타트업이다. 최근 저사양 CPU를 포함한 모든 CPU에서 실행되는 자율주행 영상인식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ADAS 첫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삼성넥스트는 2017년 6월 브로드만17

에 소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이후 브로드만17은 삼성의 지원 등을 통해 4명이던 근로자가 현재 70여 명으로 늘었다. 업계에선 브로드만17과 모빌아이의 ADAS 분야에서 격돌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모빌아이의 ADAS 시스템이 높은 사양의 하드웨어를 요구하는 반면, 브로드만17은 저가형 컴퓨터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 2017년 200억 달러였던 ADAS 시스템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9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모빌아이와 현재

ADAS 분야에서 가장 진보한 회사"라며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브로드만17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년 전 미국 전장부품 업체 하만을 인수하며 자율주행차 시장에 발을 디뎠다. 또 자동차용 AP인 엑시노스 오토V9를 독일 자동차 아우디에 탑재하고, 자율주행차의 눈인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자율주행차용 OLED 등을 개발했다. 인텔 역시 2017년 초 17조 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모빌아이를 인수했고, 자율주행차용 CPU 공급과 미국 자동차 부품회사 델파이와의 동맹 등을 통해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삼성 美 기업평판 순위 1년새 28계단 올라 7위

삼성이 미국 내 기업평판 순위에서 3년 만에 '톱10'에 다시 진입했다. 7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발표한 '2019년 기업평판 우수 100대 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은 평점 80.0점으로 7위에 올랐다. 등급으로는 가장 높은 '탁월(Excellent)'로 분류됐다. 이는 작년 순위 35위(77.56점)보다 28계단이나 급등한 기록이다. 삼성은 2012년 13위, 2013년 11위, 2014년 7위로 상승곡선을 그리다 2015년에는 구글, 애플 등을 제치고 3위까지 올랐다. 2016년에도 7위를 차지하면서 10위권 기록을 유지했다. 그러나 갤럭시노트7 사태 등으로 2017년에 49위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는 소폭 상승한 35위를 기록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 외에 LG가 작년보다 10계단 오른 15위(79.0점)에 랭크되면서 '최우수(Very Good)' 등급을 받았고, 현대는 5계단 하락한 61위(72.3점)로 '우수(Good)' 등급에 머물렀다. 권태성 기자 tskwon@



기아차 SUV '더 뉴 니로' 출시
기아차는 7일 서울 강남구 BEAT 360에서 '더 뉴 니로' 보도 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2016년 첫선을 보인 니로는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전기차(EV) 라인업을 모두 구축한 친환경 전용 브랜드다. 더 뉴 니로는 기존 모델의 정체성을 이어가면서 보다 단단하고 역동적인 SUV 이미지,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했다. 전면부는 △3D 입체감의 다이아몬드 형상 파라메트릭 패턴(가운데서 바깥으로 흘러내려 나가는 패턴)을 적용한 라디에이터 그릴 △그릴 하단부에 적용된 크롬

△새로운 하단부 범퍼 △화살촉 형상의 듀얼 LED DRL(주간주행등) △신규 디자인의 프로젝트션 헤드램프 등을 적용해 역동적이며 강렬한 느낌을 완성했다. 기아차는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에 6가지 색상을 각각 4단계로 다양하게 조절 가능한 무드램프와 변속 및 회생제동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패들쉬프트, 오토홀드 기능이 포함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적용했다. 가격은 하이브리드 △트러스터 2420만 원 △프레스티지 2590만 원 △노블레스 2800만 원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 2993만 원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노블레스 트림 3452만 원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 3674만 원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갤럭시 버즈, 하만 음향기술이 귀에 쏙

음성 인식 탁월한 무선 이어폰
갤럭시 워치 액티브 동시 출시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버즈(Galaxy Buds)'와 '갤럭시 워치 액티브(Galaxy Watch Active)'를 8일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갤럭시 버즈'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인이어(In-ear) 무선 이어폰으로 콤팩트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갖췄다. 귀에 쏙 맞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에 더 작고 가벼워져 장시간 사용하거나 운동할 때에도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크기별로 3종의 윙팁과 이어팁을 제공해 사용자의 귀에 맞춰 조절할 수 있다. 이어버즈 안쪽에 2개의 마이크를 탑재해 주변 상황에 따라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해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통화할 수 있다. 한 번 충전으로 음악 재생은 최대 6시간, 통화는 최대 5시간까지 가능하며, 전용 케이스를 통해 추가 충전 시 최대 13시간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블랙·화이트·옐로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15만 9500원이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는 새로워진 미니멀 모던 디자인에 세련된 감각을 더한 스마트 워치다. 40mm의 사이즈와 25g의 무



갤럭시 버즈(위)와 갤럭시 워치 액티브. 게, 불소 고무 재질의 스트랩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39종 이상의 운동 종목 트래킹이 가능하며, 걷기, 달리기, 자전거 등 6가지 기본 운동은 자동으로 운동 시간과 칼로리를 기록해 하루 동안의 활동 목표를 달성하도록 관리해준다. 실버·블랙·로즈 골드의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24만 9700원이다. 송영록 기자 syr@

LG 클로이 로봇, 동화 들려준다 70개 출판사 아동 콘텐츠 MOU

LG전자는 아동용 콘텐츠 업체인 '주식회사 아들과딸'과 'LG 클로이 인공지능 홈 로봇 교육용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LG전자가 개발하는 인공지능 로봇 'LG 클로이(LG CLOi)'에 아들과딸의 아동용 도서업인 '아들과딸북클럽'을 장착해 차별화된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들과딸이 제공할 콘텐츠는 70여 출판사의 9만여 개에 이른다. 'LG 클로이'는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 주거나 자장가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표정과 음성으로 즐거움,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하고 시선을 맞출 수 있어 실제로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권태성 기자 tskwon@

배터리업계, 中 구조조정에 미소

현지 업체 1년 새 135→90개
빈자리 한국기업 공략 기대

내년 전기차 보조금 폐지 앞뒤
기술력으로 동등한 승부 가능

중국 2차전지 업계의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으면서 중국 시장에서 흑하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봄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배터리를 제외했던 보조금 정책 역시 내년 말 폐지를 앞두고 있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력 상승이 기대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CATL을 포함한 상위 5개 업체가 70%를 차지하며 소수 업체를 중심으로 배터리 업계가 재편되고 있다. 상위 5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이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GGII는 중국 현지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2017년 135개에서 지난해 90개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업체수 감소는 2차전지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중국정부가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업체들은 3원계 배터리에 대응 가능한 업체들로 기술력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배터리 업계에선 구조조정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중국 지역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합작사 형태로 진출할 때 현지 2차전지 업체와 협력하더라도 벤더는 최소 2개 이상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 있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이 자리를 꿰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더욱 강화된 것도 국내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은 전기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금액은 최소 1만 5000위안(주행거리 150km 이상 200km 미만)에서 최대 5만 위안(400km 이상)이었다. 올해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지급 액수를 절반 규모로 줄이며, 기존 보

조금 지급 대상이던 주행거리 250km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팩 에너지 밀도별 보조금 가중치도 kg당 160Wh 이상만 원금 지급으로 강화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순수 전기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고 이는 3원계 배터리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내년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폐지되면 국내 업체들은 본격적으로 중국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기술력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중국 투자를 진행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LG화학은 중국 난징에 1조20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 증설에 나섰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빈강 경제개발구에 전기차 배터리 2공장을 건설 중이다.

삼성SDI는 중국 텐진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에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증설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중국 창저우에 82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다리미 하나에 450만원

스위스 다리미 제조업체인 로라스타가 프리미엄 다리미 신제품을 출시한다. 가격은 328만 원부터 최고 448만 원이다. 로라스타가 7일 공개한 스마트 시리즈는 세계 최초 커넥티드 시스템을 지원하는 다리미다.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해 스마트폰으로 다리미를 자유롭게 제어하며, 전용 앱을 통해 물 잔여량, 다리미 필터 교체 주기 알림도 보낸다.

사진제공 로라스타

전기선 없는 TV 나오나 삼성 무선 전력공급 특허

세계 지식재산권기구에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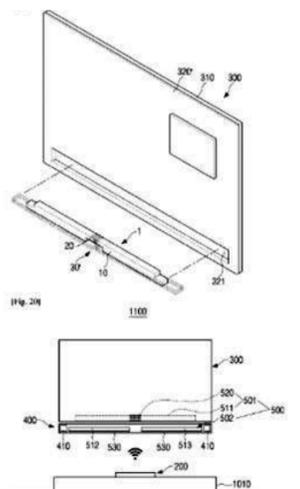
앞으로 전선 없이 TV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전기선을 비롯한 각종 케이블이 전혀 없는 차세대 TV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는 TV에 적용할 수 있는 ‘무선 전력 송수신 시스템(wireless power transceiver)’에 관한 기술특허를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신청했다.

WIPO가 이달 초 웹사이트에 공개한 특허 신청서에는 가로로 긴 막대 형태의 패드를 통해 전력을 원격 공급하는 개념도가 담겼다. TV와 벽 사이에 패드를 두면, TV는 패드로 전력을 공급받아 전선 없이도 작동되는 원리다. 기존 TV 모니터 뒷부분에 엉겨 있던 전기선과 연결선 문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5년 갤럭시S6에 스마트폰 업체 중 최초로 무선충전 기능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후 카페와 백화점 등 유통인구가 많은 곳에 무선충전기가 설치되며 모바일 무선충전 시대를 열었다. 이 같은 기술은 더 진화해 올해 공개된 ‘갤럭시S10’에서는 무선으로 배터리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무선 전력 송수신 시스템은 이미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미국 퀄컴이 선보인 전기차용 무선 충전시스템 ‘헤일로(Halo)’가 대표적인 예다. 전기차



삼성전자가 지난해 특허 출원한 TV용 ‘무선 전력 송수신 시스템’.

를 도로에 설치된 헤일로 위에 주차하면 별도의 케이블 없이 충전할 수 있다.

무선 전력 송수신 기술은 다른 집안 가전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집안 곳곳 콘센트에 무선 충전 패드를 설치하면 공기 청정기를 원하는 곳에 이동시켜 사용할 수 있다. 선 없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를 대폭 개선할 수도 있다. 미국 유력 경제매체인 포브스는 삼성전자의 특허 출원에 대해 “패드와 기기 사이의 거리가 멀면 송전량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TV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화질 화면도 전력 소모량이 많지 않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자연의 힘으로
피부를 다스리다
Uniquemi Premium Mask

유니크미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선유도 코오롱디지털타워 www.uniquemi.co.kr 고객센터 : 1577-9536~7

모비스, 엘리엇 주주제안에 정면 반박

“2.5조 배당은 기업가치 훼손”

현대모비스가 엘리엇 어소시에츠 엘.피.(Elliott Associates, L.P.)와 포터캐피탈 엘엘씨(Potter Capital LLC)의 주주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7일 엘리엇의 배당 관련 주주제안에 대해 “당사는 부품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한 안전현금 보유와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조5000억 원의 배당은 미래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기업가치와 주주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사회는 3년간 배당 1조1000억 원, 자기주식 매입 1조 원 및 자기주식 소각 4600억 원 등 총 2조6000억 원 규모의 중장기적 주주환원 정책을 결정했으며 이것이 주주제안의 일회적 배당에 비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사 수를 11인 이하로 확대하는 정관 개정에 대한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다양성 등 이사회 질적 강화가 더욱 중요하며 현재 이사 원수도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현대모비스는 엘리엇 측의 사외이사 선임·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주주제안에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현대모비스는 “주주제안 후보자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글로벌 비즈니스·R&D·재무·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이사회 추천 이사 후보들(사내이사 3명·사외이사 2명)이 당사의 경영상 필요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칼 토마스 뉴먼 후보는 자동차 시장 기술·전략분야 전문가로 산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브라이언 존스 후보 또한 미국 공인회계사로 미래 성장 위한 투자자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나의 유일한 슬픔은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일본군의 총칼에 맞서며
대한독립을 외쳤던 이름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 하고
18살의 나이에 세상을 등진 이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억해야 할 그 뜨거운 이름
유관순 열사

100년이 지난 오늘
그 정신을 되새겨봅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이 희망과 함께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Hope Together.

함께 시작하는 희망의 100년



100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신한금융그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애국 열사들을 되새기고 100년 전 그들의 정신과 함께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1902.12.16 - 1920.9.28 유관순

천안 아우내 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이화학교 1학년이던 1919년에 3.1 운동이 벌어지자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와 20일 동안 약 3,000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 아우내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이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으나, 옥중에서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군의 무자비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18살의 나이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자료제공처: 유관순열사기념관)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DS 신한아이티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김찬규 “신약 자신감에 경남제약 인수 참여… 시너지 클 것”

〈메디포럼 대표〉

치매치료제 후보물질 제조시설 만드는 데 최소 100억 들어
시설·인력·유통망 갖춘 경남제약 인수하는 편이 낫겠다 판단
건강기능식품 중심 경남제약도 글로벌 도약… 양사에 윈윈

“치매 치료제는 전문 의약품이다. 치매 치료제 PM012가 품목 허가를 받으면, 레모나에 기대 성장해 온 경남제약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윈윈(win-win)이다.”

치매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 바이오 메디컬 기업 메디포럼이 경남제약 인수전에 뛰어 들었다. 넥스트BT와 바이오제네틱스가 살아 싸움을 하는 가운데 바이오제네틱스가 승기를 쥐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 측에 투명한 절차를 지켜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경남제약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했고, 인수전은 출발선에 다시 섰다. 현재까지 경남제약에 인수제안서를 낸 업체 중 메디포럼은 유일한 비상장사다. 7일 김찬규(60) 메디포럼 대표를 만나 인수에 나선 이유를 들어봤다.

메디포럼은 구기자, 숙지황 등 천연물 재료에서 얻은 신약 후보물질(PM012)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달

임상2a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고, 현재 임상2b상을 준비 중이다. 임상2b상과 임상3상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는 도네페질과 비교 임상을 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메디포럼의 신약이 도네페질과 비교해 효과는 뒤지지 않으면서,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신약에 관한 자신감은 경남제약 인수의 근거가 됐다.

그는 “임상3상에 성공한 이후를 생각하고,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품목 허가를 받으면 제조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최소 100억 원이 든다”며 “공장을 새로 지는 것보다 시설과 인력이 모두 갖춰진 경남제약을 인수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임상 시험 과정에서도 제조 시설이 없는 서러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약사들이 3상이 끝나면 제조권을 달라는 조건을 걸어 계약을 제안한



김찬규 메디포럼 대표가 7일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다”며 “개발 단계에서는 우리가 읊이지만, 임상이 끝나면 값이 될 수 있는데 상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메디포럼이 경남제약 인수에 매력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유통망이다. 경남제약은 국내 1만2000여 개 약국 유통망을 갖고 있다. 1957년 설립돼 인적·물적 자원이 탄탄할 뿐 아니라 도소매 영업에 관한 노

하우도 축적돼 있다.

김 대표는 “건강기능식품에 주력하는 경남제약과 전문의약품을 취급하는 메디포럼이 만나면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포럼은 지난달 신한금융투자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190억 원을 투자받았다. 김 대표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신한금융투자 측이 200억 원가량을 추가로 자금 조달해 주겠다고 했다”고 했다.

비상장사로서 상장사를 인수한다고 하자 우회상장을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김 대표는 “우회상장 뜻은 전혀 없다”며 “이미 독자 상장 계획을 갖고, 신한금융투자를 중간사로 선정해 상장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포럼은 올해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지만, 임상 시험 진행 과정에 따라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주가를 띄우기 위한 의심은 피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이제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는 괜히 본격적인 인수 전에 흡입이 날 것 같아서였다”며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정리를 해주는 분위기여서 우리도 진실한 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만의 순천당제약에 원료 추출을 의뢰하고 있는 메디포럼은 경남제약을 인수해 국내에서 개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굳이 외국 제약사에 의뢰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그렇게 되면 기술 유출 문제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공유주방 등 O2O분야 규제 개혁”

중기부, 민관합동 토론회 개최
전통시장·주차공유앱 협력 추진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규제 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공유 주방 활성화 등 6개 사안에 대한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이날 중기부는 한화드림플러스 강남점에서 ‘스타트업과의 동행 - O2O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O2O 분야 민관합동 규제혁신 토론회와 전통시장·주차공유 앱 간 협력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중기부는 그간 민관합동 규제해결 플랫폼에서 e-모빌리티, 의료기기 분야의 핵심적인 규제 애로 해소를 추진했다.

지난달 그 세 번째 주제로 O2O를 선정하고 스타트업계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 규제 건의를 받은 중기부는 창업기업 대상 사전 의견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

쳐 개선 요구가 높은 6개 과제를 최종 토론회로 정했다.

6개 과제는 △공유 주방 활성화 규제개선 △학원서를 통합차 공유 중개 플랫폼 활성화 규제개선 △개인차량에 대한 외부 광고 허용 △영업소에서의 이미용 업무 금지 규제개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금지 완화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이다.

공유 주방 ‘위국’을 운영하는 심플 프로젝트컴퍼니의 김기웅 대표는 기업 간 거래(B2B) 유통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B2B 모델이 가능해지면 공유 주방 모델이 훨씬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 서클 공유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도 논의됐다. 현재 13세 이상의 학생은 해당 차량을 이용할 수 없으며, 승차 공유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원과 차주 간 차량 공동소유 조건 탓에 학원을 폐원할 때마다 반복적 등기절차 등 행정부담이 크다는 애로가 제기됐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중기부 “올 4조80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

3조8000억 민간자금 포함
민간 주도 ‘제2 벤처붐’ 기대
자영업·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스타트업 규제자유특구 추진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4조8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민간주도로 ‘제2의 벤처붐’을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중기부는 1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민간 자금(3.8조 원) 등을 끌어모아 총 4조8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22년까지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도 마련해 스타트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벤처생태계의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M



홍준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A 펀드도 조성하고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 혜택도 2021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사모재간접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의 독립적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품개발, 작업장, 온라인 공동 구매·판매, 전시장까지 아울러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올해 2곳에서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예비 창업자 1만명에게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에 대비해 채무조정과 취업전환 등도 병행해 지원한다.

창업실패를 딛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올해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면제건수를 올해 9만 건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오래된 부실채권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약 3만 명에게 재기 기회가 제공된다.

중기부는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도 힘을 쏟는다.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규제 없이 사업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도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각종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 신사업이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까사미아, 신세계 편입 1주년… “매장 경쟁력 강화”

신세계그룹 계열사 편입 1주년을 맞는 까사미아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7일 까사미아는 8일자로 신세계 편입 1주년을 맞는다고 밝혔다. 까사미아는 “이를 기점으로 올해 공격적인 매장 수 확대에 나선 것이며 연말까지 20여 개 매장을 추가 출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까사미아는 이달 말 스타필드 시티 위례점과 4월 관악점을 새롭게 연다. 이로써 까사미아는 전국 100여 개 매장을 확보해 고객 접점을 더욱 넓힌다는 방침이다.

까사미아는 상품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엔드 가구



까사미아 압구정점 전경. 사진제공 까사미아

‘라메종’을 이달 중순 새롭게 론칭하고 하반기에는 해외 유명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 라인을 추가로 출시, 프리미엄 상품 라인업을 구축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과기부, 우주개발 사업 5813억 투입

‘발사체 기술 자립’ ‘인공위성 고도화’ 등 6대 전략 발표

정부가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300t급 1단 엔진 연구·개발과 인공위성 활용 서비스 등 우주개발에 올해 581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30회 우주개발진흥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에서 확정된 시행계획에는 ‘우주발사체 기술 자립’ 등 6대 전략이 담겼다. 우선 1780억 원이 투입되는 우주발사체 기술 자립분야에서는 지난해 시험 발사한 75t급 누리호 엔진 4개를 묶어 300t급 누리호 1단부를 제작하는 클러스터링을 시

작한다. 또 누리호 3단부인 7t급 엔진의 인증모델 종합연소시험도 추진된다.

총 3122억 원이 투입되는 ‘인공위성 활용 서비스·개발 고도화·다양화’에서는 지구관측 부문의 천리안2A호(기상)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용된다. 천리안 2B호(해양·환경)의 총조립·우주환경시험, 다목적실용위성(정밀감시) 6호 총조립, 7호 상세설계 등도 수행된다. 산업육성과 학업부 부문에서는 산업육성·공공수요 대응을 위한 차소형 1·2호 조립과 4호 개발 착수, 차소형 1호 운용, 2호 인증모델 제작 등이 추진된다. ‘우주탐사 및 우주감시’ 전략에는 623억 원이 투입돼 550kg급

시험용 달 궤도선 시스템 상세설계가 수행되고 진동·음향시험 등 본체 지상검증도 추진된다.

이밖에 한국천문연구원 NASA 달궤도 우주정거장 참여 등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에 183억 원, 우주부품시험센터 구축 등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에 104억 원,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에 3억 원이 투입된다. 차세대 중형위성 3·4·5호 개발 계획을 담은 ‘차세대 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계획(2019-2025년)’에는 올해 120억 원 등 7년간 30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은 “수립된 계획이 우주개발 역량 강화와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이행을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1인에 의한, 1인을 위한...가맹점 창업 키워드 '나홀로'

가보니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

올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화두는 단연 '1인'이다. 혼자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1인 창업은 물론 1인 가구를 겨냥한 아이템도 주목받고 있다.

7일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 45회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는 이 같은 창업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부터 사흘간 열리는 프랜차이즈 서울에서는 1인 가구를 겨냥한 반찬전문점, 배달전문점 등이 대거 참여했다. 1인 창업이 가능한 독서실 프랜차이즈, 1인 창업을 도와주는 키오스크 시스템은 물론 매장 서빙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달리버리 로봇 '푸드봇'까지 등장했다.

◇인건비 절감 노력 어디까지... 무인편의점부터 서빙로봇까지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부담은 지난 연말과 올 초 프랜차이즈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박람회장 곳곳에서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했다. 과거 박람회가 외식업체 중심이었다면 올해도 외식 브랜드가 많긴 했지만 결제시스템 관련 기업의 참가가 크게 늘었다. 고객이 주문부터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키오스크 관련 기업들이 앞다퉈 시스템을



VD컴퍼니의 '푸드봇'이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에서 자율주행 서빙을 시연하고 있다(왼쪽 사진). 키오스크 기업들은 코인노래방에 키오스크 시스템을 적용,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다.



인건비 절감 돕는 키오스크 시스템·서빙 로봇 시연 화제 1인 가구용 반조리·밀키트 브랜드 늘고 '편&푸드' 차별화

을 시연하며 창업자들을 유혹했다.

무인 편의점도 등장했다. 최근 대기업 편의점과 대형마트가 시범적으로 실시 중인 무인 편의점 브랜드로 박람회에 참가한 '더편24'는 단순히 제품 진열에만 그치지 않고 제품 하단 가격 정보 기재 코너를 디지털 기기로 변경해 동영상으로 제품에 대

한 설명과 광고를 볼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 더했다. 키오스크의 진화도 눈에 띈다. KLC, Touch B 등 키오스크 전문기업들은 주문과 결제만 이뤄지던 키오스크를 코인노래방에 적용하거나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렌탈 서비스를 도입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인 창업이 가능한 공부인독서실, 하우스스터디카페 등 독서실 프랜차이즈도 박람회 참가가 크게 늘었다. 독서실 프랜차이즈는 초기 시설투자 비용은 높지만 1인 운영이 가능해 몇 년 전부터 주목받는 아이템이다.

트레이 서너 개를 한번에 서빙할 수 있는 '푸드봇'은 관람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푸드봇' 상단의 모니터에 테이블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테이블까지 이동해 음식을 서빙해 주는 신개념 로봇이다.

◇1인 가구 겨냥·이색 아이디어로 승부 = 인건비 절감과 함께 1인 가구를 겨냥한 브랜드도 속속 눈에 들어왔다.

진인찬방을 비롯한 반찬전문점들은 단순 반찬뿐만 아니라 밀키트와 반조리 식품까지 함께 내놓으면서 HMR(가정간편식) 시장의 성장성을 실감케 했다. 또 배달전문 삼겹살전문점 등 1인 가구를 위한 배달 전문 브랜드가 대거 등장했다. 세탁 프랜차이즈 2위 브랜드인 월드크리닝은 1인 가구를 겨냥한 코인세탁전문점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색 아이디어로 무장해 차별화를 시도하는 브랜드는 '편&푸드'를 지향하며 눈길을 끌었다. 마녀주방은 해골과 마녀 모자 등 기괴한 인테리어에 메뉴 역시 마녀의 모자나 거미줄, 유령을 연상케 하도록 디스플레이했다. 역전할머니 맥주는 부스 내에 할머니 분장을 한 직원이 직접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이색 퍼포먼스도 마련했다.

스테디셀러 브랜드들은 박람회에서 관심을 과시했다. 20년 이상 장수 프랜차이즈로 안정성을 검증받은 김밥 프랜차이즈의 시초 '김가네'를 비롯해 샤브샤브의 명가 '채선당', 보쌈의 대중화를 연 '원할머니', 즉 전문점에서 한식전문 프랜차이즈로 거듭난 '본아이에프' 등도 이번 박람회에 부스를 차렸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글로벌 '방탄커피' 열풍...GS25서 즐겨볼까

저탄수화물·고지방 다이어트 커피 업계 첫 '키토제닉 메이트팩' 개발

편의점 GS25는 업계 최초로 '방탄커피'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방탄커피(bulletproof coffee)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 CEO 데이비드 에스프리가 개발한 커피로, 총알도 막아낼 만큼의 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커피라는 데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방탄커피를 마시면 높은 포만감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오랜 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천연버터와 MCT오일에 있는 지방은 체내에 쌓이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사용되는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방탄커피가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의 핵심 메뉴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외 유명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즐겨왔던 것이 알려지며 전 세계적인 붐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홈트족, 다이어트족을 중심으로 방탄커피 다이어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제조가 쉽지 않아 간편하게 즐기기가 어려웠다.

GS25는 카페25 아메리카노에 천연버터와 MCT오일을 손쉽게 첨가해 방탄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키토제닉 메이트팩'을 개발했다.

키토제닉 메이트팩에는 청정지역 뉴질랜드에서 목초 방목한 소에게서 얻은



100% 앵거 버터 6g과 순수한 MCT오일 14ml가 액상 형태로 들어갔다.

GS25 방탄커피 메뉴는 '방탄다이어트 커피 비기너용'과 '방탄다이어트커피 헤비 유저용' 2종이다.

차현민 GS리테일 카페25 MD는 "주요 커피 전문점에서도 방탄커피는 취급하고 있지 않다"며 "특별한 다이어트 커피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GS25에서 업계 최초로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이제 '야쿠르트 아줌마' 대신 '프레시 매니저'로 불러주세요"

창립 50주년 맞아 명칭 변경 방문판매 채널 경쟁력 강화

한국야쿠르트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야쿠르트 아줌마'의 명칭을 '프레시 매니저(Fresh Manager)'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국야쿠르트의 상징과도 같은 '야쿠르트 아줌마'는 1971년 47명으로 최초 활동을 시작했다. 특유의 친근한 이미지와 성실함으로 1975년 1000명, 1983년 5000명, 1998년 1만 명을 넘어서며 국내 대표 방판 조직으로 성장했다.

48년 만에 새롭게 바뀌는 '프레시 매니저'는 신선함을 뜻하는 'Fresh'와 건강을 관리해주는 'Manager'를 합친 단어다. 신선한 제품을 전달하며 고객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뜻을 담았다. 한국야쿠르트는 대대적인 명칭 변경을 통해 방문판매 채널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며 신선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한국야쿠르트는 '프레시 매니저'라는 새로운 이름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4년 익숙했던 노란색 유니폼을 핑크색으로 과감하게 바꾼 것을 시작으로 최근 블루로 포인트를 준 신규 유니폼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해 왔다.

여기에 세계 최초 이동형 냉장카트 '코코(Cold·Cool)'를 통해 '프레시 매니저'의 활동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코코'는 현재 9300대 이상 보급되었으며 '폴드브루', '잇츠온' 등 새로운



사업군으로 확장을 가능케 해 '프레시 매니저' 수입 향상에도 기여했다.

고객 관리는 보다 스마트하게 진화했다. 온라인 통합플랫폼 '하이프레시' 구축으로 고객이 쉽게 제품을 주문하고 선택한 제품을 빠르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동형 POS단말기와 카드 결제 시스템은 고객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한국야쿠르트는 '프레시 매니저'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해 갈 예정이다. 1994년 서울 광진구청과 손을 잡고 시작한 '홀몸노인 돌봄활동'은 현재 전국 617개 지자체와 연계해 3만여 명의 홀몸노인을 돌보는 사업으로 확대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야쿠르트 이항용 영업부장은 "프레시 매니저"는 한국야쿠르트의 신선한 제품으로 고객의 건강을 관리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제품을 전달하며 고객의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전기차 '트위지', 이마트서 판매

〈르노삼성〉

이마트가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판매에 나선다.

이마트는 이달 초부터 국내 도심형 초소형 전기차 대표 모델인 르노삼성의 '트위지(TWIZY·사진)'를 전국 25개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마트는 자사가 운영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전문 편집매장 '엠라운지(M-Lounge)' 등 기존 전기차 판매 매장 20곳에 추가로 신규 팝업매장 5곳을 더해 소비자 접점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트위지는 쉐미시스코 'D2'에 이어 이마트가 판매하는 두 번째 전기차로, 이마트는 국내 대형마트 중 최초로 완성차 기업과 손잡고 초소형 전기차 시장 확대에 나선다.

220V 가정용 일반 플러그로 충전할 수 있고, 3.5시간이면 100% 충전된다. 1회

충전으로 55km에서 최대 80km(최고속도 80km/h)까지 주행할 수 있다.

이번에 판매하는 트위지는 총 3가지 모델로 소비자의 이용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기본형인 2인승 '인텐스(소비자가 1430만 원)', 뒷좌석을 트렁크로 대체해 최대 180l/75kg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1인승 카고(소비자가 1480만 원) 외에 2019년 신규 모델로 출시한 2인승 '라이프(소비자가 1330만 원)'로 라인업을 넓혔다.

또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별 별도 보조금 혜택을 더하면 '인텐스' 모델 기준으로 실제 구매 가격은 지역에 따라 510만 원(청주)에서 810만 원(대구)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이마트는 31일까지 트위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나 34만5000원 상당의 프리미엄 장문을



무료로 장착해 준다. KB국민카드 결제 시에는 24개월 무이자 할부와 2% 캐시백 지원 등 강력한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허준석 이마트 스마트모빌리티 담당 바이어는 "트위지는 1~2인승 초소형 전기차의 대표 모델 중 하나로 앞서 선보인 D2와 함께 이마트 내 초소형 퍼스널 모빌리티 매출을 견인할 것"이라며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마트가 앞장서서 대기오염 없는 다양한 친환경 이동수단 소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다가오는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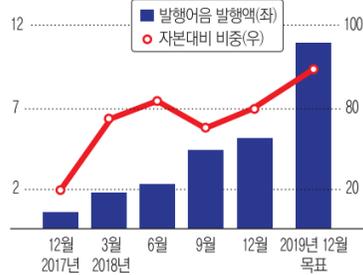
‘발행어음 시장’ 11兆 규모로 커진다

한국투자·NH투자증권 이어 KB증권도 발행어음 인가 신청
증권선물거래위원회 통과 가능성... 금융위 승인 후 사업 개시 전망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인 발행어음 시장 규모가 올해 11조 원으로 성장하면서 자본시장의 한 축을 담당할 전망이다. 당장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양강구도인 발행어음 시장에 새로운 주자가 뛰어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신청이 이번 달 증권선물거래위원회(증권위)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지난달 열린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에서도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계획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외평위의 의견을 참고해 실사를 거쳐 증권위에 해당 안전을 상정하게 된다. 증권위에 해당 안전이 상정돼 통과되면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지난해 발행어음 인가 사업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우리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신종 자본증권의 채권발행 주관업무 관련 위법여부가 경미한 사안으로 결론 나면서 발행어음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 것도 호재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위 상정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발행어음 발행잔액 및 예상 규모
(단위: 조 원)



면서도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와 관련해 한 차례 실사를 했으며 외평위의 의견을 참고해 추가 실사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어음은 초대형 IB가 자체 신용으로

어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다. 초대형 IB는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기업금융에 쓰도록 돼 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 두 곳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B증권이 인가를 받게 되면 발행어음 시장의 성장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KB증권도 증권위에서 안전이 통과되고 내달 초 금융위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곧바로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발행어음 규모 시장은 6조 원대다. 한국신용평가는 KB증권이 신규 시장에 진입했을 경우 올해 초 대형 IB의 발행어음 규모가 11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잔고는 각각 4조3000억 원, 1조8000억 원 정도다.

김영훈 한신평 연구원은 “지난해 9월 기업신용공여 한도가 100%에서 200%로 확대되면서 기업금융 부문 이익 창출에 긍정적”이라면서 “한도 소진율이 높은 NH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즉각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의 징계 여부가 변수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된 자금을 개인대출로 활용했다고 보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안으로 결론을 낼 계획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8세대 쏘나타, 현대차 주가에 호재”

새 디자인·첨단 안전·편의사양 등 상품성 높여
증권사 보고서 통해 수익성 개선 전망 잇따라

(한국)으로 환산된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 역시 “연비가 신형 파워트레인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해 상품성 개선에 기여했다”며 “이와 함께 신형 플랫폼을 통해 공용부품도 늘렸다는 점에서 원가구조 및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신형 쏘나타의 흥행이 부진한 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차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 연구원은 “2019년 쏘나타의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44.2% 증가한 9만5000대, 2020년 북미 판매는 14만9000대를 전망한다”며 “현대차의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현대차 실적 회복을 위해 해선 30만 대 이상 볼륨모델의 히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형 쏘나타 판매는 긍정적”이라며 “뿐만 아니라 현대차는 8세대 쏘나타를 공개하면서 주춤을 앞두고 엘리트에도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현대자동차가 5년 만에 ‘신형 쏘나타’를 공개했다. 이름만 빼고 다 바꿨다는 ‘8세대 쏘나타’가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차를 살릴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은 보고서를 통해 신형 쏘나타의 상품성이 개선되면서 현대차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현대차는 7세대 모델 출시 이후 5년 만에 완전변경 모델인 신형 쏘나타를 공개했다.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전략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적용했으며 각종 첨단 안전 및 편의사양, 신규 엔진 및 플랫폼 등으로 차량 상품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대차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신형 쏘나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현대차의 대표 볼륨 모델로서 소비자 관심유발 효과는 물론 딜러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전체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쏘나타는 파워트레인, 플랫폼, 디자인 언어가 모두 최초로 적용됐다”면서 “향후 신차들에 대한 기대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증권사들은 이번 신형 쏘나타의 연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신형 쏘나타의 경우 구형 모델 대비 연비가 약 10.8% 개선됐다”며 “신형 모델은 연비 향상으로 경쟁 모델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고, 연비 상승 효과는 현재 가치 922달러(미국), 126만 원

삼성전자·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전망 하향 조정 반도체株 털어내는 外人

“수요 둔화·D램가격 30% 하락”
전문가 연합 부정적 전망 이어져
6거래일간 5954억여치 순매도

들의 1분기 실적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며 “수요와 가격이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2분기에도 멈추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당분간 이 같은 추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당장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석달 전 14조 원을 훌쩍 넘어섰던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40% 가까이 떨어진 8조2666억 원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조3000억 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연초 반도체 대장주들을 적극적으로 사들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팔자’로 돌아섰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이익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27일 이후 6거래일간 코스피 시장에서 595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집중 매도했다. 이 기간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 2366억 원, 삼성전자 2075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이들 종목은 외국인 순매도 상위 1·2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시장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한다. 최근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반도체 가격 하락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D램 가격이 직전 분기보다 30% 가까이 떨어졌다”며 “반도체 수요가 둔화하는 가운데 재고는 증가하고 설비 가동률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보는 반도체 업황 전망 역시 비슷하다.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기업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2월 PC DRAM과 서버 DRAM가격이 각각 31.3%, 26.7% 하락했다”면서 “이를 감안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도 하향 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계절적 수요가 돌아오는 2분기에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절적 수요 회복으로 메모리 업체들의 재고는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며 “재고 감소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반기 DRAM가격 하락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외국인들의 복귀 여부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지만 미·중 무역협상 결과 등 글로벌 이슈도 얽혀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선영 기자 moon@

NH투자증권·DBS은행, 리서치·해외영업 ‘MOU’

NH투자증권은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은행과 7일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리서치 및 해외영업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DBS는 1968년 설립된 싱가포르 최대 은행이다. 총자산은 3330억 달러(약 372조 원)에 달한다. 현재 홍콩,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타이완 등 18개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특히 리서치, 기업금융, 자산

관리(WM) 분야에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DBS(Development Bank of Singapore)와의 MOU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한국 투자자의 정보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관심지역의 경제와 산업, 기업에 대해 다양한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란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해외영업 협력을 통해 해외기관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효과도 기

대되고 있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중국 화태증권, 이번 DBS와의 MOU에 이어 앞으로 일본 등 지역별 현지 증권사와 협력해 회사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티모씨 왕 DBS 리서치본부장은 “한국에서 증권 분야 최강자인 NH투자증권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뉴프라이드 “美 대마 판매점 월 매출 두 자릿수 성장”

뉴프라이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 중인 칸나비스(Cannabis, 대마) 사업 매출이 급성장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뉴프라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오픈한 합법 칸나비스 판매점 ‘로열 그린스’는 오픈 이후 올해 1월까지 매월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로열 그린스’ 매장만 월 매출이 약 100만 달러(한화 약 11.2억 원)를 넘어섰으며 하반기 월 기준 200만 달러(약 22.5억 원), 연간 약 2000만 달러(약 225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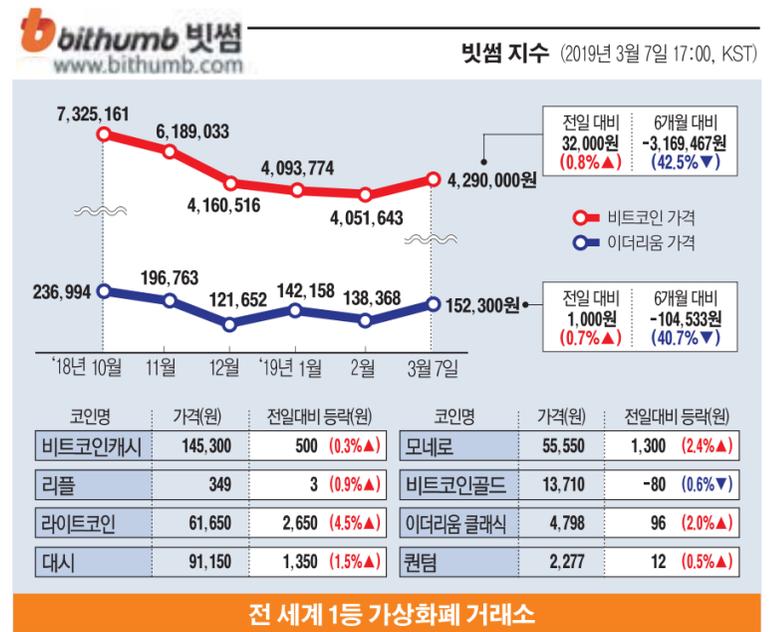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케네스 리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최대 대마초 온라인 유통 및 배송회사 ‘이즈(eaze Solution)’와 제휴를 맺고 시작한 로스앤젤레스 서부지역의 온라인 및 모바일 독점 판매가 매출 성장세를 큰 폭으로 견인하고 있다”며 “1월 기준 일평균 273건을 기록한 칸나비스 관련 제품 배달 건수가 연말 약 520여 건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열 그린스’의 칸나비스 제품 브랜드 반응이 좋아 현재 이즈 측으로부터 판매 지역을 넓히는 부분에 대한 제한을

받고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뉴프라이드는 올해 칸나비스 상품 제조 및 도매 유통 사업 부문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아델란토(Adelanto)와 랭캐스터(Lancaster)의 재배시설이 완공돼 칸나비스의 대량 재배를 통한 자체 생산 제품이 늘어나는 만큼, 판매점 외 추가 부문에서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면서 3년 내 칸나비스 사업 부문 매출을 1억 달러(약 1126억 원)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고종민 기자 jim@



공정위 경고에도... 오너 2세 기업 등 내부거래 1220억

(작년 12월 한 달)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중흥건설

시행·시공사 간 내부거래로 수익 작년 '사익편취 심한 집단' 분류 오너 2세 보유 비계열사도 거래 중흥토건 영업익 2년 새 19배 ↑

중흥토건	2015년	2016년	2017년
(단위 : 억 원)			
매출	6168	8754	13066
내부거래	5265	6444	8538
비중(%)	85.36	73.61	65.35
영업이익	73	678	1372

시티건설	2015년	2016년	2017년
(단위 : 억 원)			
매출	2722	5471	6818
내부거래	703	5126	5936
비중(%)	25.83	93.69	87.06
영업이익	226	371	920

※출처 : 금감원 전자공시



회장과 장남 정원주 사장, 차남 정원철 시티건설 사장이 그룹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그룹의 대표 계열사 중흥건설의 내부거래 비중은 60%에 육박한다. 2015년 99%이던 비중이 2017년 59.63%까지 내려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오너 2세들이 보유한 개인회사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원주 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중흥토건의 내부거래 비중은 65.35%에 달하며 정원철 사장의 시티건설 역시 87%라는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두 회사의 영업이익은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9배, 4배 급증했다. 이밖에도 경영 2세들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비계열사들과의 거래가 만연한 상황이다.

공정위의 주요 타깃이 됐음에도 현재

까지 중흥건설그룹의 내부거래는 진행형이다. 실제로 공정위의 발표 이후 계열사 중흥건설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체결한 내부거래 계약을 살펴보면 △중흥산업개발 270억 원 △세흥산업개발 120억 원 △그린세종 350억 원 △중흥개발 255억 원 △청원건설산업 75억 원 △영담 75억 원 △세중중흥건설 75억 원 등 총 1220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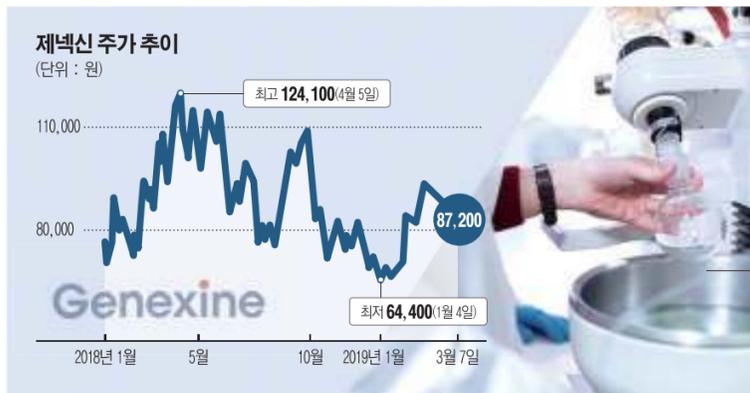
최근엔 공정위 외에 다른 곳에서도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대기업 오너 4명을 주식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했는데 정장선 회장 역시 여기에 포함됐으며, 벌금 1억 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또 올 1월엔 손해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폭포 부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공사였던 중흥건설과 함께 조사받을 것을 제안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고대영 기자 koda0@

중흥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너 2세 기업 등 계열사 전방위로 보다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그룹은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발표한 '공시 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서 사익편취

가 심한 집단에 분류됐다. 공정위는 당시 중흥건설그룹 (27.4%)을 셀트리온 (43.3%), SK (26.8%) 등과 함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으로 공개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그룹에 대해 "시행·시공사 간 내부거래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흥건설그룹은 주요 계열사인 중흥건설을 비롯해 다수의 시행·시공사 간의 내부거래로 수익을 올렸다. 1989년 설립된 중흥건설은 2001년 중흥건설산업에 주택건설업을 분할하고 2007년 다수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등 그룹 규모를 키워왔다. 중흥건설 정장선



감사위원회 없애고 상근감사로 제넥신, 내부통제 역행하나

1년 만에 정관 변경·조직 축소 시도 "소규모 기업 감사위 운영 어려움 기업 실정 맞춰 상근감사로" 해명

제넥신이 1년 만에 내부통제 약화를 시도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제넥신은 22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안건을 다룬다. 대부분은 주권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른 내용의 변경과 필요 없는 조항 등의 삭제가 대다수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항의 삭제다. 회사는 해당 정관 변경의 목적이 "상근감사로의 전환에 따른 수정"이라고 공시하고 있다.

제넥신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안미정, 백성기, 이태웅 등 3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역할도 맡겼다. 선임 당시 이들의 임기는 2021년 3월까지였다.

제넥신은 지난해 감사위원회로 내부통제 수단을 변경하기 이전까지는 '상근감사'를 썼다. 상근감사란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다.

제넥신이 상근감사 제도를 운용한 것은 2014년 별도 기준 자산총계가 1000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상법에는 자산총계가 1000억 원을 넘는 상장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자산 규모가 2조 원을 넘는 상장사

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즉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내부통제 수단이 '비상근'감사→상근감사→감사위원회'로 강화·확대되는 셈이다.

법에서 이처럼 감사제도를 회사 규모에 따라 확대 운영토록 한 것은 IMF 구제금융 이후 기업 경영 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상주하지 않는 (비상근) 감사보다는 상근감사가, 상근감사 1인보다는 수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좀 더 세밀하게 기업경영을 감시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도입의 또 다른 이유로는 감사 역시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제대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상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은 상근감사보다 좀 더 까다롭다. 이 때문에 제넥신이 감사위원회를 운영한 지 불과 1년 만에 정관 조항을 고치면서까지 상근감사로 되돌리는 것은 일견 내부통제의 수준을 한 단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회사 관계자는 "경영진에서 판단한 내용이라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소규모 기업에서 감사위원회를 한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 실정에 맞춰 정관도 고치고 상근감사로 되돌리는 것으로 보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넥신의 새로운 상근감사로는 현재 사외이사 3인 중 1인인 포스텍 총장 출신 백성기 씨가 선임될 예정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KYOBO 교보증권

70th 창립 70주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로보서비스 무료이벤트

신용공여이자율 혜택이벤트

해외주식 담보대출 이자율 인하이벤트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인하이벤트

EVENT 1 로보서비스 무료 이벤트

대상: 로보서비스(투자익달인, 마보, 스톡포) 이용 무료
 (로보서비스는 신·중·대고객만 가능)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교보증권 기존 및 신규고객

로보서비스 소개

- 1 투자익 달인**
- 최대 10%의 실적배분 수익률 보장 (투자 수익률 10% 이상 시)
- 2 마보**
- 마보, 스톡포, 기술혁신, 재무관리, 세금관리, 가치투자, 성장성 분석 등 총 6가지 토픽으로 투자 성공률을 높여주는 서비스
- 3 스톡포**
- 2개의 로보연간 수익률 목표를 분석하여 종목과 매수시점을 알려주는 서비스

교보증권 MTS WinK > 전체 메뉴 > 로보/재무서비스에서 가입

EVENT 2 국내주식 신용공여 혜택 이벤트

대상: 신용공여자를 연 4.9%, 담보대출자를 연 5.5%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당시 최초 신규 및 휴면 고객의 비어있는 계좌 개설 건

※ 신용공여 실적, 신용한도, 신용등급 및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VENT 3 해외주식 담보대출 인하 이벤트

대상: 해외주식 담보대출 연 4.1% 적용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이벤트 기간에 발생한 담보 대출건

EVENT 4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인하 이벤트

대상: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미국 0.15%, 홍콩 0.2%, 중국 0.2% 적용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이벤트 수수료 적용일로부터 2020.12.31까지

대상: 이벤트 기간에 비어있는 또는 잔액이 없는 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한 고객 (신규증권개설에 한함)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2 본인 인증

3 주소 등 정보 입력

4 신분증 촬영

5 계좌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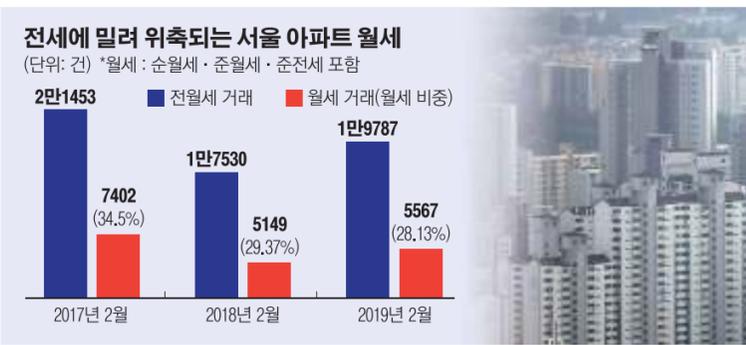
6 신청완료

투자자 유의사항

교보증권은 금융투자 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비해 예금보통예금과 다르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적금 납부비용 미납 시 기간 내 추가 납부를 개종하지 않으면 납부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예매는 투자 전, 거래일, 은행, 대외환율 등 국내 채무와 차이를 알 수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 또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5대대 시 0.14%의 주거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신규개설 고객 1개 적용, 중·대고객은 신규계좌만 해당) 주식 기본 매매수수료는 전 시장 0.3% (비면역)이며 최소수수료는 미국 30USD, 홍콩 300HKD, 중국 1000CNY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조건에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이벤트 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및 소비자 지원센터(1544-0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보서비스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갭투자가 끌어내린 전셋값... 월세족, 전세 환승 '러시'

쪼그라드는 서울 월세 시장
대출규제 등 수요 억제정책 여파 전세 매물 쏟아져 가격도 하락 지난해 입주물량 증가도 한몫



'갭투자'와 입주물량 증가로 물량이 늘고 전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자 월세 대신 전세로 갈아타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의 전체 전월세 거래량은 1만9787건으로, 이 중 월세(5567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28.13%로 나타났다. 월세에는 순월세와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상 240개월치 미만),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가 모두 포함된다.

지난해 같은 달 29.37%, 2017년 34.50%와 비교해 보면 월세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이다.

월세 비중 감소의 주요인으로는 최근 2년간 유행한 '갭투자'가 꼽힌다. 갭투자는 주택 매수금을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보전(補填)하는 투자 방식이다. 때문에 갭투자 증가는 전세 공급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대출 규제도 '갭투자' 선택을 더

욱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합영진 지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대출규제 등 수요 억제책이 진행되면서 입주잔금 마련이 어려운 수분양자들이 저렴한 전세매물이라도 내놓게 됐다"며 "이런 흐름이 주변 전세가격 조정까지 이끌어내다 보니 주거비 부담이 있는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오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입주물량 자체도 많았다. 2015~2016년 급격히 늘었던 아파트 분양이 지난해부터 입주로 이어져 전세매물도 늘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3만6956호였다. 특히 미니신도시급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9510가구)가 지난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자 일대 전세가격이 출렁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영향이 전월세 시장에 선 반영되면서 지난해 10월 서울아파트 전월

세 거래의 월세 비중은 24.12%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1월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다.

서울 월세 비중은 2015년 3월 처음 30%를 넘어선 뒤 줄곧 30%대를 지켰다. 2017년 3월에는 35.6%까지 치솟았다. 저금리 기조로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공급해 임대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량 증가로 전월세 시장에서 입차인 우위 분위기가 형성되자 비교적 임대료 부담이 덜한 전세에 수요가 쏠리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 2936호로 지난해보다 많아 당분간 월세 위축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합영진랩장은 "연내 아파트 입주량이 38만 호로 하반기까지 입주 러시가 계속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착공만 해도 집값 '쑥쑥' 부동산 흥행 잣대는 '지하철'

부동산 시장에서 지하철 개통은 흥행의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교통난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만큼 광역 수요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지하철 개통 시 주택가격이나 상권 등 부동산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하철 개통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도 실제 개통이 되기까지는 평균 13~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착공 시기를 주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설역 착공 및 준공 시기에 맞춰 수혜 단지의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2016년 개통된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광고중앙역 앞에 있는 '광고자연앤힐스테이트(2012년 2월

분양권은 현재 4억~4억441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분양가(약 3억 5000만 원) 대비 5000만~9000만 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올해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신설역 일대도 마찬가지다. 올해 6월 개통을 앞둔 미사역 인근에 있는 '미사강변파밀리에(2014년 6월 입주)' 전용면적 84.75㎡는 지난해 12월 6억9000만 원에 거래되며 전년도 11월(6억 원) 대비 아파트값이 9000만 원 올랐다. 인근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미사역' 오피스텔 분양권에도 타입별로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었다.

5호선 연장사업 신설역 일대 오피스텔 분양권 프리미엄 1억 아파트값 1년새 9000만원 ↑

입주)'는 착공 이후 지역 시세가 급등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면 광고중앙역 첫삽을 뜬 2011년 2월 전용 84.68㎡의 분양권은 4억 347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분양가(3억8769만 원)보다 약 4700만 원 웃돈이 붙은 가격이다. 개통한 2016년 1월 이후에는 6억8000만 원에 거래돼 착공 이후보다 약 2억5000만 원 가까이 오르며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오피스텔에도 수천만 원의 웃돈이 형성됐다. 광고중앙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2020년 4월 입주)' 전용면적 59㎡

공급된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는 285가구 모집에 9765명이 몰리며 평균 3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자를 차지하고 전 가구가 단 기간에 주인을 찾았다. 지난해 11월에 분양된 '하남 호반베르디움 에듀파크' 역시 평균 11.89대 1의 경쟁률을 거두며 흥행을 이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옥죄기로 불안정성이 가중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지하철 개통 호재는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호재로 꼽히는 만큼 신설역이 들어서는 지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청약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할 수 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덕풍역(2021년 예정) 호재가 있는 현안1지구(1월

〈春來不似春: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

봄 주택시장 '춘래불사춘'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31건... 전년동기비 2087건 줄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봄철 특수마저 자취를 감췄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31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2118건의 1.46% 수준이다.

'강남4구(강동, 강남, 서초, 송파)' 시

장도 잠잠하다. 이 기간 매매가 이뤄진 곳은 4건을 기록한 송파구뿐이다.

거래금액도 대부분 3억~6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원을 웃도는 고가 아파트 매매는 없었다. 이 기간 최고 거래가는 9억 원으로 동작구 흑석동에서 성사됐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 거래자뿐만 아니라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도 침체를 체감하고 있다.

일반 거래시장을 보면 집을 팔려는 사람은 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지표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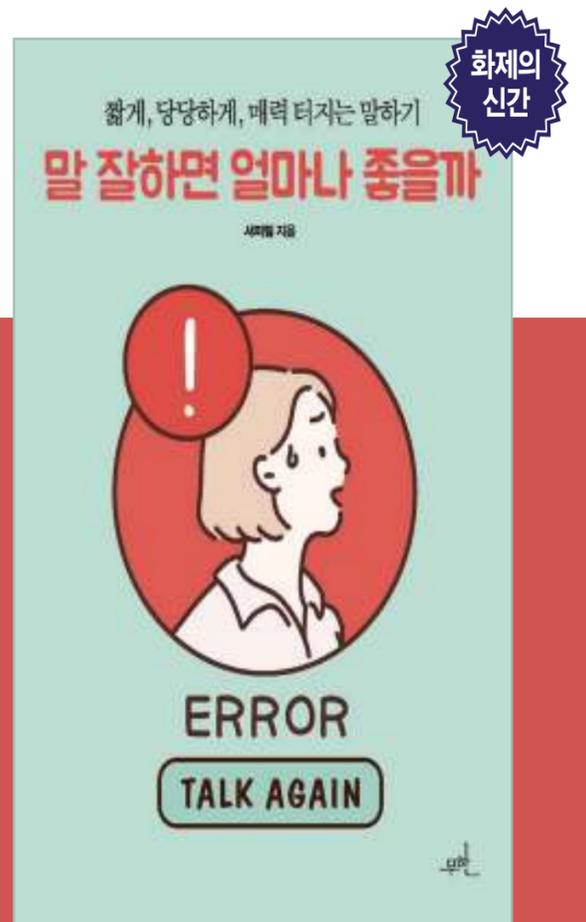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달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를 보면 42.9로 전월 대비 7.1포인트 하락했다. 40선으로 떨어진 것은 2016년 2월(48.6) 이후 3년 만이다. 지수는 0~200 범위 이내에서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를,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서지희 기자 jhsseo@

2019년에는 '짧게, 당당하게, 매력 터지게' 말해보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 평소 대화할 때, 상대를 설득을 해야 할 때 이 책의 말하기 기술을 떠올린다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들을 발판삼아 '당당한 나, 매력적인 나'의 모습을 찾아보자!

- 상대의 '심리를 지배하는' 말하기
- 상대의 '마음을 훑치는' 말하기
- 상대를 '행동하게 만드는' 말하기



오너 별장이 연수원으로 둔갑... 회삿돈 빼돌려 자녀 유학 '숨은 자산가' 95명 세무조사

국세청, 전국 동시 전방위 조사
제조업 31명·건설업 25명 順

국세청이 고소득 자산가를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재벌 등 고소득 자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과세당국의 검증 기회가 적었던 이른바 '숨은 자산가'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법인의 사주는 쓰지 않은 판매·관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내 자녀 유학비 등에 썼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가족의 휴양시설을 회사 연수원 명목으로 사들이거나 직원이 아닌 친인척·자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뽀뽀한' 사주도 과세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매출거래 과정에 유령 법인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받거나 위장계열사와 거래를 하며 과도한 비용을 주는 등 일부 압제 대기업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한 사례도 있었다.

조사 대상 95명의 재산은 총 12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1인당 평균 1330억 원으로,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이 1040억 원, 부동산이 230억 원이었다. 나머지는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으로 추정됐다.

구간별로 보면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5000억 원이 넘는 대재산가도 7명이나 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25명), 도매업(13명) 등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은 해외 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자산 취득 내역, 국가 간 정보 교환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됐다"며 "재산·소득 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와 내·외부 탈세정보 등도 활용됐다"고 말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매화 향기에 취해볼까요 매화가 만개한 전남 광양시 다암면 매화마을에서 7일 오후 관광객들이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매화마을에서는 8일부터 17일까지 '제21회 광양매화축제'가 열린다. 연합뉴스

"분묘 파헤치면 징역형으로만 처벌 합헌"

현재 "전통문화 등 고려 합당"

분묘를 무단으로 파헤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춘천지방법원이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을 받는 A 씨의 신청에 따라 제정된 분묘 발굴 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160조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법 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범죄자는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현재는 "입법자가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

상, 분묘에 대해 가지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심판대상 조항에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며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분묘의 상태, 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고 짚었다. 장효진 기자 js62@

서울시, 첫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23개 투자·출연기관 대상... 성별 임금격차 개선 앞장

여성일자리지원도 대폭 확대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해 성별 임금격차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임금격차 해소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우선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정보를 10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첫 공시한다.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7%(2017년 통계청)로, 16년째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는 확대됐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답보상태(2008년 36.8%→2017년 37%)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24개 여성일자리기관(여성능력개발원 1개소, 여성발전센터 5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그동안 경력중

단 여성의 재취업 중심에서 모든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5개 '여성발전센터'는 권역별로 특화한다. 예컨대, G밸리와 인접한 남부센터는 ICT 산업을, 상암DMC와 인접한 중부센터는 영상·문화 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특화한다.

제각각이었던 24개 기관의 명칭도 '서울시 여성일자리(가칭)'라는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개편한다. 여성을 '개발', '발전' 시키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기존 명칭을 과감히 버린다.

서울시는 또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3·8 성평등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여성 안전 인프라 확충, 젠더 이슈에 집중해 안심택배(210개소), 안심귀가스카우트(34만 건),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구축 등을 선도한 데 이어 이제는 여성이 경제 주체로서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경제·노동 분야 성평등 실현에 한층 강력하게 나선다는 계획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삼성테크윈 前 임원 등 방산비리 관련자 기소

터키 무기중개인으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예비역 준장과 전직 방산업체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6일 K-2 전차기술 수출과 관련해 터키 무기중개인으로 부터 뇌물을 수수한 예비역 준장 고모 씨를 부정처사후수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무기중개인으로 부터 K-9 자주포 납품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전 임원 김모

씨를 배임수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터키에서 근무하며 K-2 전차기술의 터키 수출 지원업무를 수행하던 고 씨는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현대로템 관계자와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을 종용해 터키와 K-2 전차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고 씨는 이를 대가로 약 8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전직 임원인 김 씨는 같은 무기중개인으로 부터 터키 방산업체의 생산제품이 K-9 자주포 성능 개량 사업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13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시밀러 vs 중추신경계 신약 vs 면역항암제 바이오 팔 걷어붙인 삼성·SK·LG

제약업계는 지금

삼성과 SK, LG 등 재계 굴지의 대기업들이 제약·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이다.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에 공을 들이며 글로벌 시장 제패를 꿈꾸고 있다.

재계 1위 삼성은 바이오시밀러를 무기로 미국과 유럽 시장을 동시 공략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1월 유방암 치료제 '온트루잔트'의 미국 식품의약품(FDA) 판매 허가를 획득, '렘플렉시스'에 이어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를 미국 시장에 내놓는다. 글로벌 판매 1위 바이오의약품 '휴마라'의 바이오시밀러 '임랄다'는 연말

제약명(프로젝트)	적응증	현황
삼성바이오에피스 베네팔리 플릭사비(렘플렉시스) 임랄다 온트루잔트 SB8	류머티즘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류머티즘 관절염 등 유방암 대장암·비스세포암	유럽 출시 미국·유럽 출시 유럽 출시 유럽 출시·FDA 판매 허가 획득 임상 3상 종료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솔리암페틀 카리스바메이트 SKL 20540 YKP10461	뇌전증 수면장애 레녹스-가스토중후군 조현병 파킨슨병	NDA 심사 개시 NDA 심사 중 임상 2상 진행 임상 1상 진행 임상 1상 진행
LG화학 유셉트 LBAL LC350189 LC280126	자가면역질환 자가면역질환 통풍 심근경색	국내·일본 출시 임상 3상 진행 임상 1상 진행 임상 2상 진행

※출처: 각사

삼성, 2011년부터 본격 투자 베네팔리 유럽 누적 매출 1兆

FDA 허가가 기대된다. 미국보다 먼저 자리 잡은 유럽 시장에서는 연 매출 60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베네팔리'와 '플릭사비(미국명 렘플렉시스)', '임랄다' 등 3종은 유럽에서 총 5억 4510만 달러(약 600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이 가운데 베네팔리는 2016년 2월 출시 이후 총 9억5660만 달러(1조 533억 원)가 판매돼 누적 매출 1조 원을 넘어섰다. 의약품 시장 정보업체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베네팔리는 유통 물량 기준 유럽 에타너셉트 시장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은 2011년부터 본격적인 제약·바이오 투자에 나섰다. '제2의 반도체'로 제약·바이오를 지목한 삼성은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집중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공장 준공으로 총 36만 리터 규모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면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강자로 떠올랐다. SK는 삼성과 달리 신약 개발에 공장 뛰어 들었다.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 후보물질 '세노바메이트'는 11월 FDA 허가를 앞두고 있다. 2020년 미국 내 판매를 시작으로 유럽을 거쳐 아시아 지역까지 세

SK, 세노바메이트 필두로 유럽 기술수출 이어美 '노크'

노바메이트의 상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노바메이트는 지난달 스위스의 아벨 테라퓨틱스와 60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는 유럽 지역에서 상업화를 위해 이뤄진 중추신경계 기술 수출 중 최대 규모다. 아벨을 통해 유럽의약품청(EMA) 허가를 받으면, 세노바메이트는 영국·독일·프랑스·스위스 등 유럽 32개국에서 판매된다. 글로벌 뇌전증치료제 시장은 2021년 70억 달러(7조8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시장이다. 1993년부터 신약 개발을 시작한 SK는 최태원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중추신경계 질환에 주력했다. 2007년 지주사 체제 전환 후에는 신약 개발 조직을 지주사 직속으로 두고 그룹 차원에서 투자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레녹스-가스토중후군, 집중력 장애, 조현병, 파킨슨병 등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다수 확보했다. SK는 SK케미칼 백신사업 부문을 지난해 7월 SK바이오사이언스로 분할하고 글로벌 백신 시장도 공략 중이다. 2015년 국내 최초 세포배양 3가 독감 백신 '스카이셀플루'에 이어 2016년 세계 최초 세포배양 4가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4가', 2017년 대상포진백신 '스카이조스타' 등을 출시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LG, 30년 R&D 역량 바탕으로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 확대

사노피와 손잡고 차세대 페럼구넬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제약산업에 진출한 LG는 최근 면역항암제 개발에 착수했다. LG화학은 미국의 바이오벤처 큐바이오파마와 손잡고 전 임상 및 후보물질 발굴 단계의 면역항암제 신약 과제 3개를 공동 개발한다. 지난해 1400억 원 규모였던 R&D 투자를 2020년 2100억 원까지 늘리고 글로벌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LG는 1979년 렉키중앙연구소를 시작으로 바이오의약품·백신·합성신약 등 다각적인 R&D를 진행하고 있다. 30년간 축적한 R&D 역량을 바탕으로 2009년 세계 유일 주 1회 소아성장호르몬 '유티로핀플러스', 2012년 국내 최초 당뇨 신약 '제미글로', 지난해 자가면역질환 바이오시밀러 '유셉트' 등을 선보였다. 그러나 후발주자인 삼성이나 SK에 비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면역항암제 개발은 LG의 제약·바이오 사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연초 미국 보스턴에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를 열고 신약 개발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가속하고 있다. 앞으로 R&D 및 시설 투자 규모를 연간 3000억~5000억 원까지 확대, 신약 파이프라인을 20여 개로 넓힐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euna@

수술 후 케어부터 재활·요양 여성만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헬스포커스

여성 암 전문 요양병원

요가·음악 등 특화 프로그램 항암주스 제공 맞춤형 식단



느루요양병원 요가 교육 모습. 사진제공 느루요양병원

여성 암 요양병원이 뜨고 있다. 유방암을 비롯해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대장암 등 여성 암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암 수술 및 항암치료 전후 더 나은 환경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서광주청년요양병원이 최근 개원한 여성 전용 암병동 '청하린(靑夏隣)'의 내부 모습. 사진제공 서광주청년요양병원

여성 암 요양병원들은 오직 여성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전문 의료진의 집중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암 수술 후 나타나는 통증과 회복을 도우면서 요양·재활·휴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고주파 온열치료, 항암면역치료 등 병원별 다양한 특화 치료 프로그램들과 함께 요가 등 운동치료, 댄스·탁구 등 취미 및 힐링 프로그램, 암 환자들이에게 맞는 균형 잡힌 식사 등이 제공되고 있다. 실내 인테리어 역시 병실이 아닌 쾌적한 호텔이나 편안한 내 집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 암 요양병원의 시초는 2017년 5월 문을 연 느루요양병원이다. 가정에서의 역할 때문에 자신을 돌보기 쉽지 않은 여성 암환자들의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오픈한 느루요양병원은 강남점에 이어 올해 1월 송파점을 개원했다. 회복과 완치까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심신을 달래며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성 암 환자들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병원 측의 설명이다.

느루요양병원은 수술, 항암, 방사선과 관련한 집중 치료프로그램인 NIH(NUR INTERGRATED HOLISTIC) 테라피를 통해 암 치료의 전 과정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신선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하루 세 끼와 두 번의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 느루항암푸드연구소에서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레인보우 항암주스가 인기 간식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씨티칼리지오 양병원도 기본적인 신체적 치료와 더불어 음악·이미용·동물매개치료 등 환자들의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하고 있다.

암병동 내에 여성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증축한 서광주청년요양병원은 여성 전용 암병동 '청하린(靑夏隣)'을 개원했다. 타 요양병원들과 달리 개금산이 시원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곳에 위치해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들과 함께 도심 속에서도 녹색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 서비스가 환자 맞춤형으로 진행되면서 늘어나는 여성 암 환자들을 위한 여성 암 요양병원은 도심을 중심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며 "요양병원별 특화된 고급 서비스 역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미세먼지 극성...인공눈물·진해거담제 판매 급증

'용각산' 매출 30% 늘고, 비강세척 제품도 인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마스크 외에도 인공눈물, 진해거담제 등과 같은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은 인공눈물 제품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로 인해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눈을 비비지 말고 인공눈물 등을 사용해 눈을 깨끗이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IMS헬스는 JW중외제약의 인공눈물 '프렌즈아이드롭'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을 10억5100만 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직전 분기(8억300만 원) 대비 30% 이상 증가한 규모다. 프렌즈아이드롭은 영양성분으로 눈의 피로 해소를 돕고 청량감을 주는 제품이다. 연매출도 2016년 20억 원에

서 2017년 30억 원, 2018년 33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자극하면서 기침을 완화하고 억제하는 진해거담제 매출도 늘고 있다. 보령제약의 '용각산'은 최근 3~4년 연평균 10%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고 지속 기간이 길수록 판매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올해 1, 2월 용각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코에 뿌리는 나잘스프레이나 콧속을 씻는 세척 제품 시장 역시 해마다 커지고 있다. 과거 GSK의 '오토리빈'이 나잘스프레이 시장을 독점했지만 '하이투벤 나잘스프레이(다케다)', '콜대원 코나 나잘스프레

이(대원제약)', '코앤클 나잘스프레이(한미약품)' 등 관련 제품이 속속 새롭게 등장하면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미국 비강세척 의료기기 개발 회사의 코 세척기 '네이메드 사이너스 린스'를 국내에 출시했다. 콧속의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 등의 오염물질을 씻어 주는 제품이다. 정수된 물에 제품 분말을 넣고 녹인 후 한쪽 코에 물을 주입하고 반대쪽 코로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방식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좀처럼 들거꾸를 찾지 못하면서 제약업계는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공눈물, 진해거담제 등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는 것을 체감한다"며 "당분간 마스크를 비롯한 다양한 관련 제품들의 매출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혜은 기자 euna@

피부 면역력 높이고 '탄력' 찾아줘요

건강한 픽템 '뷰티 디바이스'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로 예민해지고 지친 피부를 회복시키는 홈케어 기기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봄 환절기까지 겹친 요즘 피부 면역력을 높이고 떨어진 탄력 관리까지 도와주는 홈케어 기기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아티베뷰티(Atibe Beauty)가 내놓은 피부 홈케어 디바이스 '이노리프'와 피부와 보디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씬비'가 주목받고 있다. <미세먼지로 지친 피부가 고민이라면 '이노리프(Innolif)' = 아티베뷰티의 '이노리프'는 집중초음파 기술을 적용한 리프팅 디바이스로, 피부 진피층에 초음파 에너지를 조사해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올라오는 탄력 개선 효과를 선사해 준다. 또 초소형 디자인의 날렵한 초음파 조사부로 눈가주

름 등 고민이 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모션 센싱 기술이 동일한 부위에 초음파가 조사되는 것을 방지해 주어 시술 전문성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피부와 보디를 동시에 관리하는 '씬비(THINBE)' = 보디와 피부를 동시에 관리해 줄 수 있는 홈케어 디바이스 '씬비(THINBE·사진)'도 있다. 6개의 전극에서 다중 중추파 에너지를 조사해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돕고, 복부 피부 두께 개선 및 허벅지 등 부위의 부기 완화, 피부 혈액 순환, 피부 탄력 개선 효과를 선사한다. 블루·옐로·레드 3가지 LED 모드는 피부 살균, 피부 톤 개선 등에 도움을 주며 다양한 강도 설정이 가능해 자신에게 맞는 자극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올댓 트립 한국 온천여행 ④ 전남·강원

송골송골 땀방울 식혀주는 바닷바람



보성 울포늪차센터 노천해수탕은 입으로 전해지는 은은한 짠맛, 코로 확인되는 바다 향과 솔 향, 얼굴을 휘감는 득량만의 차가운 바람, 몸속으로 스며드는 뜨끈한 기운이 깊은 휴식을 선사한다.

사진제공 한국관광공사

3월이다. 추웠던 겨울이다 지났다. 미세 먼지 폭격으로 칼칼해진 목을 풀고, 봄의 시작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온천을 찾아 자연으로 떠나보자. 모름지기 온천은 자연 속에서 즐겨야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눈 호강까지 덤으로 한다면 어찌 피로가 풀리지 않겠는가. 시나브로 몸이 녹고 마음마저 따뜻해지는 느긋한 겨울의 끝에 온천이 주는 선물이다.

보성 울포해수늪차센터

지하 120m 암반 해수·늪차탕 해돋이 명소 울포 해변 나들이

◇몸으로 마시는 늪차... 뜨끈한 노천해수탕과 늪차탕의 앙상블 = 전남 보성 울포로 가는 길은 더디고 따사롭다. 몸속에 스며드는 해수탕의 온기처럼 느긋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구불구불 언덕을 내려서 차밭을 지나 육지 끝까지 내달리면 회전면 울포다. 모래 해변과 솔숲이 호젓한 곳에 '뜨끈한' 울포해수늪차센터가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노천해수탕과 늪차탕에 테라피 시설까지 갖춘 현대식 건물이 제법 등장했다. 울포해수늪차센터에 닿기 전에 득량만 바다가 눈길을 끈다. 고깃배가 드문드문 떠

는 바다는 해안에 명물 하나를 보냈다. 울포해수늪차센터는 3층 건물이다. 이곳의 자랑거리는 3층에 들어선 노천해수탕과 테라피 시설이다. 노천해수탕에 몸을 담그는 순간, 고단한 여정이 눈 녹듯 사라진다. 득량만 바다와 솔숲, 울포해변이 한 눈에 들어온다.

입으로 전해지는 은은한 짠맛, 코로 확인되는 바다 향과 솔 향, 얼굴을 휘감는 득량만의 차가운 바람, 몸속으로 스며드는 뜨끈한 기운이 깊은 휴식을 선사한다. 노천해수탕은 울포의 일출을 감상하는 이색 포인트다. 울포해변은 남해의 해돋이 명소로, 올 초 해맞이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이곳 해수탕은 지하 120m에서 끌어올린 암반 해수를 사용한다. 해수 온욕은 미네랄이 풍부해 신진대사에 효능이 있으며, 혈액순환과 피부 미용,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뜨끈함으로 치면 노천탕 중앙에 위치한 유아탕이 인기다. 몸을 눕히고 가족끼리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기에는 이곳이 오붓하다. 이 밖에 야외 공간에는 족탕, 냉탕 등이 있다. 겨울에는 바닷이 얼기도 하니 노천해수탕 주변에서 이동할 때는 미끄럼에 주의한다.

3층 실내 공간에는 테라피를 위한 아쿠아토닉풀이 있다. 강한 수압으로 결리고 쭈시는 몸을 다스리는 곳이다. 넓은 풀에 온도가 적당해 꼬마들이 물놀이하기도 좋다. 실내 시설은 찜질방으로 연결된다. 스킨테라피방, 황옥방, 황토방, 아이스방 등이 테마별로 갖춰졌다. 황옥방에서는 창으로 바깥 풍경이 훤히 내다보인다. 오락 기구가 있는 키즈방 역시 아이들에게 사랑받는다.

2층으로 내려가면 남양, 여탕 등 본격적인 욕탕과 사우나 시설이 있다. 찜질 모양

을 형상화한 욕탕 내부는 녹색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곳에는 해수탕 외에 고온늪차탕이 있다. 보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차의 고장. 울포해수늪차센터에서는 늪차의 이름과 효능을 빌려 찜질방을 하룻가량 우린 물로 늪차탕을 운영한다.

고온늪차탕은 녹색이 아니라 진한 황토색을 띤다. 뽀글뽀글 기포까지 더해져 늪차를 '몸으로 마시는' 기분이 든다. 늪차 온욕은 피부 질환, 항균 작용, 스트레스 해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포해수늪차센터정문에서 울포해변이 바로 연결된다. 울포해변은 보성군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잔잔한 바다와 고온 모래밭, 고요한 포구가 어우러진 남도 바다의 모습을 갖췄다. 해변 따라 이어진 솔밭은 산책 코스로 좋다. 50~60년 된 곰솔이 늘어섰으며, 곳곳에 조각 작품이 분위기를 더한다.



속초 척산온천휴양촌의 노천탕(위)과 설악산 토왕성폭포 전망대 가는 길에서 바라본 울산바위.

속초 척산온천휴양촌

설악산 등산 후 몸풀기 좋아 재가열 안한 50도 原水 사용

◇설악산이 주는 선물... 절경과 함께 즐기는 천연욕 = 서울양양고속도로 덕분에 설악동 가는 길이 가까워졌다. 양양 JC에서 동해고속도로로 갈아타고 북양양 IC로 나오면 설악동이 지척이다. 매표소를 통과하면 설악산국립공원의 상징인 곰 동상이 보인다. 여기서 토왕성폭포 전망대로 가려면 왼쪽으로 꺾어 비룡교를 건너야 한다.

곰 동상에서 토왕성폭포 전망대까지 2.8km 거리로 왕복 2시간 30분쯤 걸리는 데, 아이젠이 있으면 겨울에도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 다리 아래로 쌍천이 얼어 보석처럼 반짝이고, 케이블카는 긴 밧줄을 잡고 영금영금 권금성에 오른다. 이 모습을 울산바위가 느긋하게 내려다본다.

울창한 금강소나무 군락지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계곡이 펼쳐진다. 얼음 아래로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피아노 선율처럼 들린다. 날이 더 추워지면 모두 팡팡 얼어붙어 태초의 적막이 흐를 것이다. 여섯 개 폭포와 소가 있는 육담폭포 위로 구름다리가 걸렸다. 다리 위에서 얼어붙은 폭포를 바라보는 맛이 일품이다.

육담폭포를 지나면 곧 비룡폭포가 보인다. 예전에는 여기가 끝이었지만, 2015년에 토왕성폭포 전망대까지 탐방로가 생겼다. 비룡폭포부터 계단이 900개나 이어진다. 계단 길은 걷기에 딱딱한데, 겨울철에는 비교적 안전하게 오를 수 있다. 등에 땀이 송송 맺힐 때쯤 계단이 사라지고, 수려한 바위 봉우리 사이로 흰 얼음 기둥이 눈에 들어온다.

설악산 토왕성폭포(명승 96호)는 상단 150m, 중단 80m, 하단 90m로 총 길이가 320m에 이른다. 전망대에서는 상단과 중단까지 훤히 보이고, 하단은 잘 보이지 않는다. 거무튀튀한 바위 사이에 드러난 새

하얀 얼음 기둥이 독보적이다. 선녀가 걸 어놓은 흰 비단 같다는 말이 고개를 끄덕인다.

원 없이 폭포를 감상했으면 길을 되짚어 내려와 척산온천으로 간다. 설악동에서 불과 7km 거리다.

척산온천이 자리한 노학동은 예부터 '온정리'로 불렸다. 한겨울에도 땅과 웅덩이가 잘 얼지 않고 김이 났다고 한다. 하지만 척산온천이 개발된 건 1970년대 초반으로 역사가 짧다. 초창기에는 작은 목욕탕 수준이었고, 1985년 원탕 자리에 지금의 척산온천휴양촌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온천탕에 몸을 담그자 언 몸이 사르르 녹는다. 온천수는 아무 맛과 향기도 없지만, 약간 푸른빛이 돈다. 척산온천휴양촌의 자랑은 뜨거운 용출수다. 수온이 50~53℃여서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

덕분에 원탕에 있는 성분이 고스란히 보존된다. 라돈이 포함된 강알칼리 온천수는 노폐물 제거 효과가 커서 살결이 부드러워

지고, 피부병에 효능이 있다고 한다. 불소 성분 덕분에 치아 관련 질환 예방과 치료에 좋다. 온천수로 양치하기도 한다.

노천탕에 나가자 멀리 설악산이 보인다. 좀 전에 다녀온 설악산 풍광을 감상하며 온천에 몸을 담그니 부러울 것이 없다.

가족이 오붓하게 즐기고 싶으면 가족온천실을 이용한다. 제법 큰 욕탕이 있는 객실에서 한가롭게 온천욕을 즐기기도 좋다. 척산온천휴양촌 별관에는 찜질방과 전망 휴게소 등 부대시설이 마련됐다. 특히 찜질방 안에 자리한 전통 불한증막은 뜨거운 열기가 일품이다. 척산온천휴양촌 관계자가 불을 때지 않는 목요일에 잔열로 은은하게 찜질하기 좋다고 귀띔한다.

척산온천휴양촌에서 빼놓으면 섭섭한 곳이 산책로다. 금강소나무 3000여 그루가 뽀뽀하게 늘어섰고, 생김새가 다양한 크고 작은 돌을 전시한 석림원도 있다. 온천욕을 한 뒤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느릿느릿 산책하기 적당하다.

광고심의필 : 2018-1448-004400



동성 여행갈때, 정로환!

느닷없는 배탈, 설사로 즐거운 여행을 망칠 수는 없죠?
잊지마세요~ 여행갈때 동성 정로환 챙기기

배탈, 설사엔 동성제약 정로환이 좋습니다

동성제약 정로환은 위장의 원활한 활동을 도와주는 생약성분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만든 제제로 설사, 식체, 묽은 변, 토사에 효능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로환 당의정은 특유의 냄새를 제거한 정제 형태로 복용이 간편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국민 정장제, 동성 정로환
이제 지긋지긋한 배탈, 설사 고민에서 벗어나십시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동성정로환

동성정로환(120환, 500환) / 동성정로환당의정(48정)
소비자 상담전화 : 080-001-0921



“액상담배 세금, 형평성 맞게 매겨야”

‘히어로주스’ 이명훈 팀장

실제 들어가는 니코틴 3μl인 60μl 용액에 10만8000원 세금 니코틴 함유량만큼 내게 해야
 궤련형보다 유해 물질 적어 해외에선 금연보조식품 취급



이명훈 히어로주스 팀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맞지만 적정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액상 전자담배에 세금 매기는 건 맞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 액상 전자담배 ‘쥬’의 국내 정식 출시를 앞두고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추진되자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국내산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히어로주스’의 이명훈 팀장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것은 맞다”면서 “이제라도 세금을 매기는 것은 맞지만 규제는 필요하되 적정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액상 전자담배 규제에 대한 논란은 담배 사업법 개정안 발의에서 시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 등 1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달 15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현행법상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합

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에는 담뱃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으로 제조된 담배 이외에 연초 잎, 줄기, 니코틴으로 확대해 액상 전자담배에도 1823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액상 담배에는 니코틴이 3μl가량 들어가지만 전체 용량이 60μl인 탓에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붙는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팀장은 “액상 담배에 1μl당 1800원의 세금이 붙으면 액상 담배 용액이 보통 60μl인데 10만8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실제 들어가는 니코틴은 3μl뿐인데 그에 대한 세금만 내는 게 맞다고 본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니 사람들이 청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액상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금이 궤련형 담배와 비교해 ‘과하다’는 지적의 글이 올라왔다. 이 국민청원에는 7일 기준 2만70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이 팀장은 “일반 연초에는 타르, 일산화탄소, 카드뮴처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 들어가는 데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연초보다 덜 해롭다”면서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는 액상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식품으로 취급하고, 우리나라가 보건소 가면 금연패치 주듯 액상 전자담배를 주는 나라도 있다. 연초보다 덜 해로우니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역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궤련형 전자담배 대표주자인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수출도 못한다. 그런데도 국내 시장에서 아이코스, 릴 등 궤련형 전자담배는 이미 전체 담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를 넘어섰다. 승인받고 정식으로 수출, 수입 되는 액상 전자담배가 국민 건강에 더 이로운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미선 기자 only@



박정원(앞줄 오른쪽 세 번째) 두산그룹 회장과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등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故) 박용근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발인식에서 운구차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미투’ 물꼬 튼 서지현 검사 ‘올해의 여성운동상’

한국사회 ‘미투(Me Too) 운동’의 물꼬를 튼 서지현(사진) 검사가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는다.



설치와 성평등 조직문화 제고를 위한 대책을 권고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서 검사를 ‘제31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 검사는 상사에 의한 성추행 피해와 검찰 조직의 부당한 대응을 고발, ‘미투 운동’의 마중물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서 검사의 폭로 후 꾸러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법무·검찰 내 성차별 실태 조사를 하고 성평등정책 전담 부서

올해 1월 29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복동 씨는 일생을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결정됐으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거리로 나선 30여만 명의 여성들’이 특별상을 받는다.

이재영 기자 lly0403@

〈페이스북 CEO〉 저커버그 “사생활 보호 중점 둔 플랫폼 만들 것”

WSJ “사업 축, 콘텐츠 공유서 개인 교류로 전환 시도”



의 메시징 서비스들인 페이스북 메신저와 왓츠앱,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를 통합하는 가운데 나왔다. 저커버그는 “현재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메시지를 보내려면 메신저를, 인스타그램에서는 다이렉트를, 왓츠앱에서는 왓츠앱을 사용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앱으로 그들의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마크 저커버그(사진)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이날 3000단어에 달하는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을 사용자들의 사생활 보호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미래 기술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비전을 그려냈다.

그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지난 15년간 사람들이 친구, 커뮤니티, 관심사 등을 광장과 같은 형태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며 “그러나 사람들은 점차 거실 형태의 디지털 환경에서 사적으로 연결되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의 미래를 생각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커뮤니티 케이션 플랫폼이 오늘날의 개방형 플랫폼보다 훨씬 중요해질 것이라고 믿는

다”며 “비공개 개인 교류와 암호화, 편리한 통신, 안전한 데이터 저장 등의 원칙을 통해 사생활 보호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커버그는 소셜미디어의 미래가 일대일 또는 소집단 내에서의 사적인 메시징과 채팅에 있다고 보고 사업의 축을 현재의 사진과 메시지 등 콘텐츠 공유에서 개인 교류로 전환하려 한다고 WSJ는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안전하면서 메시지와 콘텐츠가 플랫폼 내에 영위해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적이고 암호화된 서비스로 옮겨갈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하는 미래”라고 언급했다.

저커버그의 성명은 페이스북이 자사

‘베트남 국민영웅’ 박항서 감독, U-22 대표팀도 맡는다

베트남에서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는 박항서(사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베트남 22세 이하(U-22) 대표팀도 맡는다.



22 대표팀의 지휘봉을 이 수석코치에게 맡기려 했으나, 11월 필리핀에서 개막하는 동남아시아(SEA) 게임을 앞두고 박 감독을 곤경에 몰아넣는 데 성공했다. 박 감독은 5일 응우옌 응옥 티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실무회의에서 VFF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7일 일간 투오이쩌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박 감독은 베트남축구협회(VFF)로부터 U-22 대표팀 지휘를 맡아 달라고 요청받았다. 이에 박 감독은 설 연휴 직후 VFF에 U-22 대표팀 지휘는 이영진 수석코치에게 맡겨 달라고 제안했다.

VFF는 박 감독의 요청을 받아들여 U-

청와대 신임 의전비서관에 박상훈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신 첫 외교부 관료 출신이 선임됐다.

박 비서관은 광주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외교안보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제23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임 의전비서관에 박상훈(사진)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를 임명했다.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된 지 104일 만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의전비서관에 대한 캠프 출신이 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이 된 뒤 외교부 유엔과장, 외교부 중남미국장, 주파나마 대사 등을 역임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광화문 ‘세월호 천막’ 1700일 만에 자진 철거

서울시 추모공간 설치 계획

광화문 세월호 천막(사진)이 1700일 만에 자진 철거된다. 광화문 세월호 천막이 있던 자리에는 ‘세월호 추모기억 전시공간(이하 기억공간)’이 설치될 예정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 현재의 절반 규모로 추모 시설물을 설치해 세월호 참사 5주기인 다음달 16일 이전에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기억공간’ 설치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광화문광장 소재지인 종로구에 가설물 설치 인가를 신청하고, 이달 15일 전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롭게 들어서는 기억공간은 목조로 만들어져 내부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각



종 전시물이 들어선다. 세월호 유족은 기억공간 공사를 위해 곧 영정을 옮기는 ‘이운식’을 하고 직접 천막을 철거하기로 서울시와 협의를 마쳤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전두환 연희동 자택 네번째도 유찰

미납 추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네 번째 입찰에서도 유찰됐다.

전 씨 측이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게 부당하다고 소송까지 내면서 투자자 입찰 유인이 더 떨어졌다.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4~6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4차 공매가 유찰됐다. 입찰자로 나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등 2건이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 원에 달했으나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10%인 10억2328만6000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다.

이번 4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보다 30억 원 넘게 떨어진 71억6300만2000원에 시작됐으나 또 낙찰자가 나오지 않았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장기전략국장 이종욱

◆국가보훈처 ◇국장급 전보 △대전지방보훈청장 이남일 ◇과장급 임용 △정보화담당관 이강신

◆금융투자협회 ◇승진 △회원서비스부문장(전무) 성인모 ◇신규 선임 △대외서비스부문장 직무대리(상무) 나석진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상무) 이창화 ◇보직 변경 △전략경영부문장(상무) 김정아 △금융투자교육원장(상무) 오세정

◆교보생명 △보험총괄담당(대외활동포함) 사장 윤열현

부음

▲곽옥자 씨 별세, 박재운(전 대법관)·

재근(전 코오롱상사부장)·재하(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재준(전 제일은행 이사) 씨 모친상, 박정숙·진숙·은숙 씨 모친상, 이기희(보라매병원 내과 의사, 갑상선학회 이사장) 씨 시모상, 김지옥(중앙대 경제과 교수) 씨 빙모상 = 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 발인 9일 오전 7시, 02-2072-2028

▲조희원(한국전력공사 초대 서울본부장) 씨 별세, 조택동(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장)·주은(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현선 씨 부친상 = 7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장지 경기도 안성 가죽묘지, 02-3010-2000

▲이재윤 씨 별세, 이영건(한국산업단지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씨 부친상 = 7일, 대한장례식장 4층 특실, 발인 9일, 063-227-4444

이필상 칼럼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출범한 지 2년이 다가오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중심의 경제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혁신성장도 힘들고 경제실패를 초래한 정부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모든 경제정책과 예산운영을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정책기조의 과감한 전환이 시급하다.

경제가 희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마치 난치병을 앓는 환자가 마땅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이 불안한 것과 같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혁신성장 정책을 동시에 펴 경제를 살리겠다고 표방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다. 더욱이 정부 정책이 부작용을 유발하여 실업과 빈부 격차 등 경제적 고통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실로 큰 문제는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곤두박질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하여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7%, -5.9%, -11.1%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2016년 7월 이후 30개월 만이다. 자칫하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도태하여 경제가 좌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정책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비판을 반박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정책 논쟁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면 소비 증가와

양극화 해소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논리를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기업들이 국제경쟁력과 고용창출 능력을 확보해 공급 측면이 소비의 활성화를 수용할 수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한다. 즉 공급 기능의 올바른 발휘가 정책의 전제조건이다. 우리 경제는 공급 측면이 구조적인 위기에 처한 지 오래다. 조선, 해운, 철강, 자동차 등 기존 산업이 비교우위를 잃어 퇴조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한 반도체와 정보통신도 중국 등의 추격에 위기에 몰리고 있다.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4차 산업혁명은 경쟁국에 밀려 뒤처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정부 정책의 부작용은 고용악화와 소득 격차 심화로 집약된다. 지난 1월 실업자 수는 122만 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최고, 실업률은 4.5%로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고다. 급격한 고용악화의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겨진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 오르고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

로 줄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따라서 폐업이 속출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최하위 20% 가구소득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8% 감소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근로소득은 37%나 줄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반면 최상위 20% 가구 소득은 10% 증가했다. 빈부격차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악화된 경제지표가 나올 때마다 기다리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근거 없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예산 투입을 늘려 기존의 정책을 오히려 확대 강화한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이미 54조 원을 투입했다. 올해 23조 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경제상황이 악화할수록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가 현실성이 낮은 정책의 함정에 빠져 경제난을 가중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들어 경제 행보를 본격화했다. 경제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구했다. 정부는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고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 핀테크 등 신산업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6일 정부는 제2 벤처 붐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신규 벤처를 위해 5조 원을 투자하고 벤처기업 규모 확대와 발전을 위해 12조 원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을 20개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경제가 새로운 산업발전체제를 구축해 성장동력을 회복할지는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는 한 혁신성장은 피상적인 정책으로 끝날 수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가온다. 현재의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경제 실패를 초래한 정부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모든 경제정책과 예산운영을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정책기조의 과감한 전환이 시급하다.



원미숙의 참견

동대 대학원 석좌교수

과학기술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의 虛와 實

이투데이, 말투데이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정년은 당초 65세로 정해져 있었으나 1998년 9월 기획예산위가 정부출연연 직원의 정년 단축을 포함한 '정부출연연별 경영혁신 추진계획 및 실적'을 발표, 그 이듬해 12월 시행된 '정부 보조기관 등 경영혁신 추진계획'으로 정년이 61세로 단축되었다.

그러나 정년·연봉·근무여건 및 연구 분위기, 사회적 인식 등으로 출연연 연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인력 유출 문제가 날로 심각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민간위)는 단축된 정년을 대학교수와 동일한 65세로의 환원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대우

를 동일 경력을 가진 대학 교수 수준으로 개선하고 우수 연구자에게는 대학의 '데뉴어 제도'를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데뉴어'란 '중신 재직권'이라는 의미로 대학 교수의 평생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정치적 외압이나 대학 당국의 해고 위험 없이 자유롭게 양심적으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났다. 교수로 임용된 뒤에는 일정 기간 연구 실적과 강의 능력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민간위는 특히 정년 환원 등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추진을 권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교과부, 국과위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연구인력 정년연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2012년 6월부터 출연연의 우수 연구 인력에 한해 정원의 10% 이내 범위에서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정년 연장 우수 연구원에게는 임금피크제가 적

용되어 연장 기간 61세 급여의 90% 수준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2012).

이렇게 시행된 출연연 우수 연구원 정년 연장 제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연구소가 자율적으로 우수 연구원 선발 기준을 정하지만 때때로 임의의 기준에 따라 우수 연구원을 선정한다는 점이다. 연구실적 평가가 우선시된다. 하지만 국가 과학기술 및 기관 발전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연구소별로, 또는 당시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정년연장의 기준이 바뀌는 예측 불가능한 제도가 된 것이다.

둘째, 정년연장이라는 좋은 제도에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여 65세의 경우 60~70%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시스템으로, 당초 '대학 교수와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간위의 의

도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정년 연장을 선호하지 않는 우수 연구자들이 많이 생겨난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출연연의 정년 환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꺼내 든 카드가 우수 연구원 정년연장제도이다. 우수 연구원에 한하여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소극적인 대안은 평생 연구에 몰두해 온 연구원들의 자존심을 저하시키고 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연구원들이 장기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출연연의 역할론이 재부각되면서 R&R(Role and Responsibility) 재정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성공적인 연구개발에는 장시간 훈련받은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수 연구원 정년연장제도가 아닌 정년 환원에 대한 숙고와 필요 이유이다.

☆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명언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개인 간 분쟁에서 정의를 세우는 데는 두 번의 재판으로 충분하다. 세 번째 재판, 즉 상고심은 좀 더 높은 차원의 문제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한 그는 미국 역사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유일하게 다 거쳤 다. 대통령 특사로 일본의 조선 지배를 묵인하는 대신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해주기로 한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은 인물. 오늘 그는 서거했다. 1857-1930.

☆ 고사성어 / 형왕영곡(形枉影曲)
형상이 굽으면 그림자도 구부러진다는 뜻. 모습이 바르면 그림자도 저절로 반듯한 법이고 굽어 있으면 그림자 또한 구부러지는 법(形直影正, 形枉影曲)을 말한다. 원인과 결과가 일치함을 이르는 말. 출전은 열자(列子) 설부(設符).

☆ 시사상식 / 테킬라 효과
한 국가의 금융 위기가 주변 국가로 무차별적으로 전염되는 투자심리를 반영한 경제 용어. 1994년 12월 외환 사정의 악화로 발생한 멕시코의 경제 위기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 신흥시장 전반으로 번진 데서 비롯되었다. 과거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에서만 위기가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경제 상황이나 자금 구조가 비슷한 나라 중심으로 확산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 속담 / 보짐 내다 주면서 하룻밤 더 묵으라 한다.
속으로는 가기를 바라면서 걸으려는 말리는 척한다.

☆ 유머 / 해몽
남편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받은 꿈을 꾸 아내가 해몽을 해 달라고 잡지는 남편을 졸랐다. 그는 생일날에 알게 될 거라고 다독였다. 아내의 생일날. 남편은 798페이지 짜리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책을 선물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기자수첩



유충현 정치경제부/lamuziq@

뒤늦게 시동걸린 '미세먼지 공약'

분위기가. 미세먼지는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화두가 아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당시에도 각 후보는 일제히 미세먼지와 관련한 공약을 내놨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한-중 정상 주 의 의제로 격상시키는 한편,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이후 위원회가

출범하긴 했지만 대통령 직속이 아닌 이낙연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출범했다. 중국과의 제대로 된 논의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파악이 부실한 탓이다. 중국의 공식 입장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 대화에 나서도록 만들 제대로 된 근거자료조차 만들어 주지 못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대통령이 이제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지금, 좀 더 일찍 팔을 걷어붙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던 3년간 대한민국은 숨쉬기조차 힘든 나라가 됐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숨통을 막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긴급 대책을 지시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인공강우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나서자 국회도 부랴부랴 장단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발언 직후 긴급 회동을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검토되기 시작했다. 온 나라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일을 하기 시작하는

이슈&인물

'새벽배송' 혼전...스타트업의 생존 전략

오정후 헬로네이처 대표

“대기업 진입 환영...상품 본질로 승부”

최근 국내 유통 시장의 최대 화두는 배송, 그중에서도 새벽배송이다. 거대 유통 공룡들이 이 시장에 주목하면서 잇따라 잠전하고 있다. 2015년 100억 원대에 불과하던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은 지난해 4000억 원대로 훌쩍 뛰었다. 그 사이 새벽배송의 3대 원조 스타트업으로 꼽히던 배민찬은 사업을 접었고, 이제 헬로네이처와 마켓컬리만 남았다. 롯데백화점과 현대홈쇼핑 등 대기업이 시장을 파고들었다. 소프트뱅크의 지원을 등에 업은 쿠팡은 업계 처음으로 전국 새벽배송에 나서며 선두 자리를 꿰찼다.

새벽배송 시장은 쫓고 쫓기는 분위기로 그야말로 과열 양상이다. 이런 와중에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헬로네이처 본사에서 만난 오정후(49) 대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되레 경쟁자를 반겼다.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소비자 이득을 끌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이유에서다. 오대표는 “아직 새벽배송 서비스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면서 “지명도 높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은 헬로네이처로서는 손 안 대고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강조했다.

헬로네이처가 스타트업계에서 처음 이름을 알린 것은 2015년 마켓컬리와 함께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을 개척하면서다. 이후 2016년에는 SK그룹에 흡수됐다. 지난해 6월 편의점 CU(씨유)를 운영하는 BGF로 등지를 틀었다. BGF는 유상증자 형태로 3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50.1%를 취득하고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헬로네이처 지분 인수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BGF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던 오대표였다.

오대표는 “개인적으로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높았고, 편의점 회사가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진 신선식품 시장에 발을 내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었다”면서 “특히 신선식품 시장은 대중적인 편의점 이미지와 보완 작용을 통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헬로네이처 수장에 오른 오대표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상품 본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상품 자체가 최고의 무기라는 생각에서다. 그는 “부임하고 가장 먼저 ‘신선하고(fresh), 유행을 따르고(trendy), 쉬운(easy) 상품’이라는 모토를 정했다”면서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1000여 명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가져와 팔면서 품질을 높였다”고 말했다. 또 좋은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MD 인력을 2배로 늘리고, 생산자 이름을 제품명 앞에 붙이는 ‘실명제’를 실시한 것도 오대표의 전략이다.

지난해 9월 헬로네이처가 판매해 이슈가 된 ‘샤인머스켓’은 그의 노력이 깃든 대표작이다. 이 상품은 한 송이(1.2kg) 가격이 3만 원 수준으로, 경쟁업체보다 2배가량 비쌌다. 하지만 오대표는 좋은 품질은 결국 인정받을 것이라는 확심으로 판매를 밀어붙였다. 포도의 일종인 이 상품은 경북 상주에서 30년 가까이 농사를 짓고 있는 추성업 장인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해 값은 비쌌지만, 일반 ‘샤인머스켓’에 비해 알이 1.5배 정도 굵고 당도는 30%가량 높았다.

오대표의 선택은 통했다. 월 30~40개가 판매되던 이 상품은 입소문을 타고 론칭 한 달 후부터는 400개씩 팔리며 대박을 터뜨렸다. 헬로네이처가 건강한 프리



오정후 헬로네이처 대표. 오 대표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은 상품 본질에 충실한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오정후 대표는...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영등포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2000년부터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액센츄어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2010년에는 대한전선 CFO(최고재무관리자)로 법정관리 업무를 맡기도 했다. 2016년부터는 BGF 전략기획실장과 사우스스프링스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헬로네이처 대표를 맡고 있다.

2015년 100억대 새벽배송시장 작년 4000억 원대로 ‘급성장’ 대기업 잇단 진입 홍보효과 ‘톡톡’

‘신선·유행·쉬운 상품’ 모토로 상품 본연의 경쟁력 제고에 집중 2배 비싼 포도 ‘샤인머스켓’ 대박

AI·냉동 워크인 물류센터 문 열고 IT 인프라 구축에 친환경 경영 ‘無 포장 부자재 시스템 연내 첫선’

미엄 식품 업체로 명성을 날리게 된 것도 이즈음이다. 이어 ‘장위 딸기’와 ‘붉은 아오리’ 등 시중에서 보기 힘들면서 질 좋은 제품을 소개해 줄줄이 히트를 쳤다. 오대표의 선구안은 성과로 이어졌다. 올 1월 헬로네이처의 월 매출은 처음으로 20억 원을 넘었다. 1년 전 대비 2배가량 오른 수치다. 올해 매출 목표는 작년(163억 원)의 두 배 이상으로 정했다.

그는 “신선식품 시장의 주요 타깃은 품질 좋은 음식에 대해 확고한 취향이 있는 30~40대”라면서 “상품 본질에 충실한다

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시장임을 확신했다”고 회상했다.

현재 헬로네이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선식품 시장 확대에 대비해 기초 체력 다지기에 한창이다. 지난달 13일 경기도 부천에 하루 1만 건의 주문을 소화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새롭게 오픈했다. ‘부천 신선물류센터’는 총 4630㎡(약 1400평) 규모로 기존 이전센터에 비해 6배가량 배송 처리 규모가 크다. 또한 업계 최초로 AI(인공지능), 냉동 워크인 시스템 등을 갖췄다. 오대표는 “시장 확대에 대비해 MD 소싱 능력을 갖춰 상품 본질에 집중하고, 물류에 투자해 바닥부터 다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IT 등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한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주문할 때 느리고 불편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면서 “최근 서버를 AWS(아마존웹서비스)로 바꾼 데 이어 현재 자체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3~4 분기 중에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경영도 강화한다. 최근 온라인 배송 급증과 함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배송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헬로네이처는 업계 최초로 재활용이 가능한 아이스박스를 사용 중이다. 오대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포장 부자재가 아예 필요 없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연내 선보이겠다”고 자신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시설

녹장 3월 국회, 조금도 허비할 시간 없다

올 들어 두 달 넘게 폐업 상태였던 국회가 겨우 문을 열었다. 국회는 7일 개회식과 함께 다음달 5일 본회의까지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19~23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참 늦은 국회 개회다. 국회법에 매년 2월 임시국회가 규정돼 있음에도 국회 스스로 법을 어기고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허송세월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야당들의 국정조사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장기간 국회를 공전시킨 것이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는 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파행이 가까스로 봉합됐다.

여야는 우선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법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 사태를 빚고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실행과 입법이 무엇보다 절박한 일임에는 이문의 여지가 없다.

국회에는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이 산적해 있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카풀 대책 관련 택시운송사업법 등 개정, 유치원 3법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법,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정시한이 코앞에 닥친 선거구획정을 위한 선거

제도 개혁 등이 다급한 현안들이다. 그럼에도 쟁점 법안들 또한 적지 않아 입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이나 빅데이터 경제 3법,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등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 국민 삶과 직결돼 한시가 바쁜 법안들이다.

탄력근로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부터 빨리 서둘러야 한다.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기간은 이달 말로 끝난다. 국회의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 산업 현장의 혼란과 충격을 피할 수 없다. 수많은 기업인들이 법안으로 내몰리는 사태도 우려된다. 최저임금도 고용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바뀌는 제도로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국회 문은 열렸지만 여야 갈등은 여전한 상태이고, 언제든지 강경한 대립구도가 재연될 수 있다. 또다시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국민들의 분노와 피해만 더 커질 뿐이다. 뒤늦게 국회를 정상화한 만큼, 여야는 밀린 법안들을 밤새워서라도 심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싸우더라도 민생을 돕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부터 해결한 다음으로 미룰 일이다. 조금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

한 킷



당신의 작은 관심이 따뜻한 위로가 되어...

때로는 누군가가 건넨 말 한마디가, 먼저 내민 따뜻한 손길이,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 큰 힘이 되는 순간이 있다. 오늘따라 어깨가 축 처진 친구가 있다면, 유난히 열광빛이 어두운 가족이 있다면 조심스레 다가가 보자. 당신의 작은 관심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른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SKT 5G X



미디어



보안



커머스



AR/VR



AI



모빌리티

왜 5G가 아닌
5GX 일까요?

X는 무엇과도 함께할 수 있고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니까
SK텔레콤의 5G는
단지 통신 네트워크가 아닌
모든 것을 연결해 새로움을 만드는
융합 플랫폼이니까
초(超)시대의 5G는 그래야 하니까

SK텔레콤이 초5G시대를 열어갑니다.



초5G 시대, 생활이 되다